

석사학위논문

서반구의 경제

- The Economy of the Western Hemisphere 번역논문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홍 순 미

2002년 6월

서반구의 경제

지도교수 박 경 란

홍 순 미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6월



홍순미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02년 6월

The Economy of the Western Hemisphere

- The Weatherhead Foundation Lectures delivered
at the University of Puerto Rico in February 1962

by Arnold J. Toynbee

Translated by

Soon-mi Hong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 Ran Park)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une 2002

목 차

ABSTRACT	1
I. 서 문.....	2
II. 본 문.....	3
1. 변화하는 세계 속의 서반구	3
2. 남미의 혁명.....	22
3. 미국의 당면과제.....	43
참고문헌	64



ABSTRACT

This book, *The Economy of the Western Hemisphere* by Arnold J. Toynbee, is lectures on the social changes based on economic situation in modern Latin America in accordance with it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uch changes as urbanization, globalization and the growth of middle class derived from the dismantle of latifundia, which was necessary for the land distribution to the landless peasants as a land-reform. Unfortunately, a small oligarchy of big landlords succeeded in maintaining their vested interests in the name of productivity. Then the middle and the working classes struggled to achieve social justice and economic efficiency, which ultimately had to go hand in hand. However, Latin America failed in their simultaneous implementation. The penalty would be either economic bankruptcy or social injustice. Bolivia was one of the cases and Mexico was another.

This front attack of latifundia forced many peasants to leave their villages. The influx of these uprooted peasants into cities took place everywhere. In addition, the use of mechanical apparatus enabled a smaller number of hands to produce a larger yield per acre. People who remained on the land also changed their life style like people in cities although their job was to produce food.

The United States also had influences on the changes of Latin America. People in Latin America expected the United States to give them financial supports without intervening in their domestic affairs. The proposal of President Kennedy, 'Alliance for Progress', was one way to solve their conflicts in line with the transparent policy of Latin American countries.

I. 서 문

사회학 전공자로서 나의 사회학적 관심은 사회조직의 유형 또는 모습이 바뀌는 사회 변동이다. 아놀드 토인비의 ‘서반구의 경제’는 1960년 초까지의 근대기에 남미 국가들이 겪는 사회변동과 그 과정에서 계층에 따른 인간의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서 번역하는 데 의의가 깊었다. 그러나 40년 전 남미사회의 상황을 다룬 것이어서 시대성을 고려할 때는 번역하는 것을 주저했으나 오늘날 아르헨티나에서는 경제 붕괴로 많은 사람들이 유럽 국가들 대사관 앞에서 비자를 받으려고 줄을 서고 베네수엘라에서는 1일 쿠데타로 후퇴했던 차베즈 대통령이 민중들의 지지로 다시 복귀한 사실 등을 보면 그 기본적인 사회의 모습은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현재의 남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서 선택을 하였다. 토인비는 그 시대의 남미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미국의 영향력에 남미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그의 분석이 현재에도 적용이 되므로 이 책은 역사학자로서의 토인비의 뛰어난 통찰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II. 본 문

1. 변화하는 세계 속의 서반구

나는 푸에르토리코 대학과 웨더헤드재단의 요청으로 ‘서반구 경제’에 대해 강연할 것이며 저명한 학자들과 토의할 것이다. 이 대학과 재단은 주제를 한정시키기를 원했으나 범위가 넓어서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서 시작하겠다. 이는 세계적으로 변화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바로는, 경제를 인간 삶의 다른 요소들과 분리시켜 다룬다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어느 한 반구를 나머지 세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룰 수도 없다. 지금 우리가 들어서려는 인류 역사의 장은 모든 면에서 세계적이며 이것을 세계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당연히 지력을 요하는 힘든 작업이다. 분리하여 다룰 수 없는 인간사의 본질을 인위적으로 세분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단순화시켜 이 작업의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으나 작업을 왜곡시킴으로써 지불할 대가는 너무나 크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요구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이 것은 분명한 남미지역의 현재 경제적 상황의 본질로 확연히 나타나며 미국의 경제적 상황에서도 잠재적 요소이다. 경제와 사회정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학만을 고립시켜 고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에 현명치 못한 것이다. 서반구와 나머지 세계와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윤리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 되기 쉽다.

거의 1세기에 걸쳐 남미의 광물과 농산물 등의 생산물은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런 생산물의 세계시장 가격은 남미지역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해외시장에서 이 생산물의 판매에 따른 수입이 남미 경제의 필수적 요소인 수입에 지불할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1차 생산

품에 대한 세계시장 가격은 변동적이며 이런 변동은 때로는 수출국가의 경제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사회, 정치적 생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 미국은 열대 남미지역국가들이 1차 생산물의 주요 소비자이다. 따라서 남미의 국가들은 그들의 주요 1차 생산품 수출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미국에 협력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어쨌든 최근까지도 미국은 남미 국가들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시장의 존재는 미국의 남미지역협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며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런 미국의 반응은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음 강연에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은 단지 세계시장은 사실상 존재하며, 서반구내의 상업적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19세기 중반부터 전 세계는 몇몇 중요 필수품의 단일시장이 되었다. 또한 1948년 소련에 이어 미국이 핵무기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전 세계는 단일 대살육장이 되었다. 오늘날 핵탄두를 실은 폭탄은 지표면에서, 지상에서, 인접한 대기권의 어느 지점에서 지표면의 다른 지점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 핵 폭탄이 로켓에 실려나가는 시대에 어느 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어느 곳이든 대살육장이 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 인류가 대규모 자살 핵무기를 사용하기를 자제할 가능성이 있는가? 핵의 대살육장 규모는 세계 어느 한 지역으로 국한시킬 수 없는 지구 전체의 범위를 나타낸다. 기술의 발전은 계획적인 대량학살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활동을 전 세계적 범위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건물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건물의 사용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 우리는 건물을 전체 인류를 목표로 한 세계적 대살육장에서 인류를 위한 세계적 안식처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변화는 극단적일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핵무기의 발명으로 대량학살을 저지르는 것과 한 가족으로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극단적인 선택에 직면하였다.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삶과 선을 선택하든 죽음과 악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세계적 규모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우리가 단일가족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선택이 자멸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는 희망을 가져다주는 어떤 움직임이 오늘날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이끄는 움직임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생각하건대 오늘날 이런 경향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다. 미국과 소련이 몰두하고 있는 경쟁적 이념과 경쟁적 국가 사이의 현재의 경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문명이 존재한 5천년 동안 문명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기여한 대다수의 인류에게 문명의 이익을 돌려주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 움직임은 세계적인 것이며 남미지역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인간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움직임은 오늘날의 남미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주요 원동력이다. 우리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명화된 세계에서 극단적인 사회불의는 관례가 되었다. 남미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미국, 북서유럽,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서구사회보다는 소위 말하는 문명사회에 오래도록 존재해 온 질병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데는 아마도 지체되었다. 지금 남미지역은 사회불의에 대항하여 일어서고 있다. 정신적 자각이 오늘날 남미지역에서 혁명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자극제가 되었다. 20세기 이전의 남미지역에서는 사회불의의 정도가 극심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이미 무르익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남미지역에는 개성과 인격의 존엄성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회정의를 이루려는 전통적 요소가 있었다.

여기서 우리시대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사회정의를 향한 이 움직임의 근원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특별한 남미지역전통의 특징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온 유산이며 기독교와 이슬람교 전통에서 기인한 것이 분명하다. 다른 전도 종교처럼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세속적으로 천하고 고귀함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의 절대적 가치를 믿는다. 정신적인 면에서 사회정의를 기독교 교회가 항상 주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서구 기독교계는 사회생활의 일상적 영역까지 사회정의를 요구하였다. 사

회정의에 대한 새로운 세속적 구현은 18세기의 계몽사상, 영국의 반노예 운동, 유럽의 구체제에 대항한 북미 지역, 프랑스, 남미 지역의 혁명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의를 향한 이런 움직임이 초기 인류 역사에서 세속적 분야로 확대되었다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19세기 이전에 인류는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문명화의 혜택을 분배하는데 필요한 생산력을 소유하지 못했다. 19세기 이후로 기술분야는 과학의 응용으로 인간의 생산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래서 인간은 유토피아적인 몽상에서 깨어나 타당성 있는 목표를 이루는 종교적, 사회적 정의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비전을 변화시킨 것이다. 지난 200년 사이에 과학의 응용은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기술적 혁명은 아직도 초기 단계였음이 확실하다. 물론 기술은 윤리적으로 중립성을 띤다. 기술의 도입은 인간의 향상된 능력을 의미하였으나 그 기술을 이용해 선과 악을 의지대로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다. 인간은 기술을 이용하여 대량살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파괴하는 대신에 창조를 위해 거대한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기로 우리가 선택한다면 기술의 진보는 전 인류를 위한 사회적 정의를 상당히 하게 이루어 낸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란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대규모의 자멸을 삼간다면 전 세계의 사회정의의 훌륭한 목표가 궁극적으로 달성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길고 험난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닥치는 수많은 좌절과 문제들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인류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남미의 경험은 모든 인류의 경험의 적절한 실례가 되었다. 오늘날 풍요로움은 존재한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곳에서 누구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극복해야 할 장애 요소들이 있다. 필요한 만큼의 숙련된 기술자와 관리자 이들이 없으면 기술은 적용될 수 없다. 이런 요소들을 갖춘 곳은 산업 혁명이 처음에 일어났던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지만 이런 지역

은 세계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기술적 능력과 경영상의 효율성을 전세계적으로 보급하려면 시간이 걸리며, 또한 이것만으로는 현대 기술이 결실을 맺게 하는데 부족하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몇 명의 숙련된 전문가들만 아니라 교육을 받은 남녀 전체인구가 필요하다. 초등교육조차도 보편적으로 보급시키기에 여전히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최근까지도 대다수의 인류는 여전히 문맹이었으며 일반 학교는 시골에서보다는 도시에 설립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농촌에서 급성장하는 도시로의 인구 이동의 세계적 추세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사회변동의 한 요소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간은 그대로 농촌에 살고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에서도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 농촌에서 거주할 것이다. 도시와 농촌에서 일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세계의 농업 종사자들의 생산성은 낮은 단계에 머물 것이며 농업생산에서 현대과학의 효과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특별한 기술도 일반적인 지식도 갖지 못할 것이다. 시대에 뒤진 농부는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는 선에서 살기 때문에 필요한 도구도 거의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이 농부는 전적으로 잠재적인 수확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다. 필요한 자본은 대부분 무상이든지 간에 다른 곳에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자본의 세계적 축적은 충분하지가 않다. 소수의 부유한 국가들조차 전 세계에 제공할 자본은 고사하고 그들 국가의 전체 국민에게 사회정의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자금도 지금에서야 간신히 마련해 놓고 있다.

사회정의를 이루는 과정에 놓여 있는 모든 이런 어려움은 여러 남미 국가의 현재 상황에서 극적으로 나타난다.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인류의 궁극적인 자원은 잠재적으로 비옥하지만 지금까지 부적절하게 이용된 토지에 인간 산업을 적용하는 것이다. 인구증가는 다른 지역에서보다 남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아시아의 평균비율 1.6%와는 대조적으로 남미지역은 해마다 2.5%를 나타내고 있다. 남미에서는 토지부족도 예외적이다. 아마도 하이티와 산토도밍고 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처럼 심각하게 토지부족을 겪고 있는 유일한 남미

국가일 것이다. 아시아의 기준에서 보면 칠레에서의 토지부족은 풍부한 자산으로 여겨지며 다른 17개 남미국가에서 기존의 토지보유는 엄청난 것이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비옥한 농촌의 대단위 보유현황이 물론 경제적 자산을 부여받았을 만큼 행운이긴 하나 즉각적인 번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볼리비아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 볼리비아의 경제 상태는 전체 남미지역에서 가장 최악이다.

1932-35년 실패로 끝난 차코전쟁 이후에도 볼리비아는 여전히 현재 볼리비아영토의 약 3/5을 차지하는 안데스산맥의 동쪽 열대저지대를 소유하고 있다. 이곳은 아직도 사람이 거의 살지 않으며 경작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 저지대에서 열대 남미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거대한 양의 열대작물이 수출을 위해 생산될 수 있다. 이 열대의 일차 생산물의 세계시장 가격은 새로운 지역에서 대단위 규모의 갑작스런 생산의 증가로 인하여 하락하게 된다. 이 일차생산품의 세계시장가격은 변동하며 때때로 작물의 생산국가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을 감수했다면 볼리비아 처녀지인 열대 저지대의 개방은 볼리비아경제에 여전히 큰 이익이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볼리비아경제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외화수익이 주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볼리비아의 외화부족은 주식시장이 몰락했기 때문이며 주식보유량도 거의 고갈상태에 있다.

볼리비아에서 수출을 위한 일차 생산물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경제적 필요성은 라파즈와 다른 도시들에 공급할 식량의 국내자원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다. 이 식량공급은 안데스 고원에 있는 볼리비아의 고대 농경지대에서 대농장에 의해 이루어졌었다. 이 대농장들은 집약적, 과학적 경작을 하지 못했으나 대규모의 기업들이었기에 잉여식량을 생산하였다. 대농장은 이 고원의 원주민 인구 밀집지역 농경인구를 이용하여 이국적인 볼리비아 도시들에 생산물을 공급하였다. 대농장의 원주민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수준은 처참할 정도로 낮았으며 대농장을 소유하지 못한 원주민사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도시의 소수

진보주의자들이 1952년 볼리비아혁명을 일으켰을 때 살아남으려는 원주민 자급농민들 사이에 토지의 부족은 격심하였다. 새로운 정권은 주석광산을 국유화하였으나 대농장을 농업생산의 가능한 단위가 될 수 없는 작은 면적으로 해체할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원주민농민들은 사실상 혁명을 장악하였고 토지와 건물을 강제로 몰수하였다. 그들은 볼리비아정부가 1953년 8월 2일 토지균분법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모든 농가가 농사지어 살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토지소유를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토지는 전에 규정한 최소한의 면적보다 더 작게 나누어지도록 한 면책 조항이다. 토지는 충분하지 않았다. 고원의 오래된 경작지역에서 토지는 생산량이 심각하게 줄어들 정도로 다시 나누어졌다. 지금 볼리비아 도시의 식량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볼리비아의 중요한 수입품목이 된 식량은 주석수출의 중단에 따른 외화 소득의 손실과 맞물려 볼리비아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치달았다.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볼리비아경제는 이런 상태였다.

내가 옳다면 이 미국의 원조는 지금까지는 주로 근대적인 분야에서 이미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분야들에 이어졌다. 아직도 가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고원 지대의 농부들은 미국의 원조를 받지 못했다. 즉 잠재적으로 비옥한 처녀지 동부 저지대의 개발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저지대의 개발은 주석광산 산업의 붕괴와 고원 지대의 식량 생산 대농장이 와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볼리비아의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할 궁극적 치료 방안이다. 그러나 볼리비아의 현 경제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우선 많은 비용을 들이고 기본적인 공공토목공사를 대규모로 벌여야 한다. 열대림이 제거되어야 한다. 즉 교통 수단인 도로와 철도의 건설, 관리를 어렵게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토양과 기후의 여건에서 만들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 사업을 충당하는 비용은 외자도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적 관점에서 보면 투자된 비용을 빨리 회수할 가능성이 없기에 투자를 끌어들이기도 어려

을 것이다. 이 기간공사가 이루어지면 정착자들은 새로 개발되는 열대 저지대로 몰려들어 경작을 하게 될 것이다. 인력의 필수적 공급을 위한 바람직한 자원은 이웃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많은 원주민 농민이 될 것이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현재 고원지대의 원시적인 자급농에서 저지대의 상업작물을 재배하는 숙련된 생산자가 된다면 그들은 볼리비아의 경제적 짐이 되는 대신에 볼리비아의 경제적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그들은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며 오랜 습관을 버릴 수도 없을 것이다. 차코전쟁에서 볼리비아에 가장 불리했던 한가지 사항은 온난한 고원지대출신 징병자들이 저지대 전쟁터의 열대기후를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이다. 새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힘이 든다. 볼리비아의 열대 저지대가 개발될 때 이주자들은 볼리비아 고원지대의 원주민들이 아니라 남부 유럽에서 온 이탈리아나 스페인 식민주의자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열대저지대의 개발로 전체적으로 볼리비아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고원지대 자급농을 하는 과밀한 인구의 원주민들은 그 자신들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현재와 마찬가지로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1952년 이후 볼리비아의 역사는 오늘날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힘과 이것으로 곤란해질 경제적 영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근본적인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농민 반란이 볼리비아에서 혁명을 시작한 중간계층의 진보주의자들을 즉시 추월하고 압도하였다. 이것에 직면하여, 현재의 진보적 중간계층의 소수정권은 미국의 원조로 세계시장을 지향하고 있는 볼리비아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 정통적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데 있어 '진보주의자들은 혁명적 집단에 바라는 즉각적인 기대감의 일부를 좌절시켰다'¹⁾ 사실 그들은 사회정의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에 우선권을 주려고 했다. 이것은 아마도 남미에

1) R. W. 패치 R. W. Patch, 『외교관계에 대한 심의회: 오늘날 남미지역의 사회변동 i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ocial Change in Latin America Today』 (New York, 1961), 157-158쪽

서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중간계층의 태도로 특징지어 진다.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하는 이 중간계층의 전사들은 승산이 없는 전투를 해오고 있다.

볼리비아에서 사회정의에 대한 민중의 요구는 지금까지 경제적 효율성을 다시 확립시키려는 중간계층의 시도에 승리를 거두었다. 볼리비아의 중간계층은 수적으로도 다른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보다 약하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더 활동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단결된 행동 능력을 보이는 것 같다.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강력한 힘은 볼리비아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멕시코, 과테말라, 쿠바에서도 나타났다. 그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초의 폭발의 본질과 상황은 4개국 모두 같았다. 이 4개국의 사례들을 보면 혁명은 진보적 중간 계층 구성원들이 외국기업에 아주 유리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속도를 가속화시켰던 전 정권에 대한 대항으로 시작되었다. 중간계층의 진보적 혁명론자들은 국가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고 잡게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사회정의의 요구에 압도되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볼리비아에서 진보주의자들은 경제적 정통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승산이 없는 전투를 해오고 있다. 과테말라와 쿠바에서 중간계층의 진보적 혁명론자들은 그들이 일으킨 민중혁명의 지도자 위치를 차지했다. 멕시코에서는 30년 동안 민중혁명이 그것의 흐름을 타도록 놔둔 후에 민중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폭발적 반대를 야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잠복해 있다가 뒤에 정권을 잡는데 성공하였다.

과테말라와 쿠바에서 중간계층의 혁명론자들이 채택한 대중노선은 그 두 나라와 미국에서 강한 반항을 일으키는 정치적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사회정의와 경제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특정한 사실조차 격렬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아르벤즈 대통령이나 카스트로 대통령이 그들 국가의 공산주의자들이나 소련에 어느 정도로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1954년 반혁명에 의해 과테말라에서 아르벤즈 정권이 전복되었는

데 이것이 1961년에 쿠바에서 미국이 원조한 반혁명의 시도가 비밀스런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로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쿠바에서 현재의 혁명은 사회정의라는 이름 하에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러 남미에서 쿠바혁명의 궁극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없으며 유사한 혁명은 과테말라에서 지금은 억눌려 있다. 따라서 과테말라와 쿠바의 혁명 대신에 멕시코 혁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멕시코 혁명은 이미 반세기 이상 진전되어 왔고 아주 뚜렷한 일련의 단계들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날 그 특성은 훨씬 더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그전에 반혁명 이후의 과테말라의 역사에 관하여 한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 아르벤즈 혁명의 정치적 본체는 사라져 버렸으나 분명히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그 정신은 사회정의의 요구이다. 현재의 반혁명 정권은 사회정의를 행하기 위하여 정복된 아르벤즈 정권의 조처들 중 하나를 미국 유나이티드 프루트사의 도움으로 계속 실시해오고 있다. 1944년 과테말라혁명을 촉발시킨 민중의 한가지 불만은 과테말라 농부들은 토지부족으로 극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유나이티드 프루트사는 아직 미 개발된 태평양 연안의 저지대에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했다는데 있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사는 후에 이 지역 보유지의 상당 부분을 현재의 반혁명정권에 이양하였는데 그것은 이전의 혁명정권이 시작한 식민지화 작업을 여기서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사의 토지이양은 과테말라에서 사회정의에 대한 요구의 지속적인 힘을 타산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경제적 효율성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부분적으로나마 사회정의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시도다. 과테말라의 태평양 연안 저지대는 볼리비아의 동부 저지대와 경제적인 면에서 대등하다. 이 지역은 두 나라의 엘도라도이며 아마도 이 지역의 궁극적 개발이 하나를 위해 또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두 마리의 토끼인 사회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과테말라의 경우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회정의

의 요구는 정치적 반혁명에 의해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폴레옹 이후의 유럽의 한 보수적 정치가가 한번은 ‘총검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위에 앉는 것만 빼고’라고 재치 있게 말했다.

1910년 혁명 후 멕시코에서 역사의 첫 장은 1952년 혁명 후 볼리비아와 같았다. 중간계층의 진보적 혁명주의 정권은 사회정의를 훨씬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농민과 산업 노동자들의 혁명적인 요구에 추월 당하고 압도당했다. 중간계층의 진보적 혁명주의자들은 민중에게 호소해야 함을 느꼈다. 민중의 지지가 없다면 그들은 멕시코의 전 세력가인 대 토지 소유자, 카톨릭 교회,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우위를 차지할 수 없었다. 진보주의자들은 민중에게 너무나 강하고 폭발적인 힘을 불러일으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멕시코의 중간계층 진보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 토지의 재분배를 선호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적은 멕시코가 외국 자본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재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17년 진보주의자들이 순전히 정치적 타협로서 민주주의를 입증했다는 면에서 1857년의 헌법을 재생시키려 했을 때 혁명주의적 민중의 대표들은 새 헌법에 사회정의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민중은 그 후에 그들의 대표자들이 정권을 장악해 새 헌법의 조항들을 실행할 수 있게 했다. 1920년-1940년까지 연속적으로 3명의 대통령 오브리곤, 카이에스, 카르디나스가 정권을 잡았는데 이들은 모두 미천한 가문 출신이었다. 카이에스 대통령은 산업노동자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그의 후계자 카르디나스 대통령은 가능한한 농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였다. 카르디나스 정권 하에서 멕시코의 대농장을 농민들에게 할당하는 재분배가 멕시코의 토지소유권의 법률상의 신분제에 따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B.C. 2세기에 농지 개혁론자인 티베리우스 크라쿠스가 이탈리아의 대농장 라티퐁디아를 농민에게 분배하였던 것처럼 멕시코의 대농장 에히도스는 자유보유권이 없으며 정부의 소작인으로서 할당된 토지를 농민의 의지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카르디나스 대통령직의 말기까지 멕시코 혁명의 역사는 잘 알려져 있다. 멕시코 혁명과정의 특징적 요소는 혁명의 역사에 걸쳐 사회정의가 경제적 효율성을 포함하여 다른 고려 사항들보다 우위에 있었다. 멕시코 혁명은 공식적으로 영구적인 것이며, 영구적 혁명이란 명칭은 타당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카마초 대통령의 취임으로 시작된 새로운 국면도 역시 혁명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멕시코 혁명의 성취는 다른 영역 즉 경제적 발전의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결국에는 1940년 이후 경제적 발전은 사회정의를 포함한 다른 어떤 고려 사항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멕시코의 ‘영구적 혁명’의 두 번째 국면은 사실상 그 민중의 자각으로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계속되는 독재에 저항하여 일어난 첫 번째 혁명의 국면 이전의 상황과 더 비슷하다.

1940년 이후 멕시코혁명이 이룩한 경제적 성취는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볼리비아, 과테말라와 쿠바는 멕시코가 지금 경제분야에서 성취한 1/4만 이룰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잘했다고 할 정도이다. 1945-1957년 멕시코의 국민총생산은 두 배가 되었고 노동자 1인당 생산은 같은 기간에 35% 증가하였다. 1939-1957년 멕시코 산업의 생산은 130% 늘어났다. 농업생산성에 있어서 당시의 진전은 놀라운 것이었다. 자급농을 제외한 상업작물 생산에서는 1945-1957년 사이에 두 배 이상이 되었다. 생산량의 증가가 69%의 경작지 확대보다 더 높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것은 새로 개발된 지역에서 농업이 더 집약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로운 농업은 새 개간지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상업작물이 심어졌다. 관개시설이 된 전체 경작지의 면적비율은 1940년 약 28%에서 1955년 약 33%로 늘어났다. 상업작물에서 크게 늘어난 대부분은 수출작물이었다.

멕시코 혁명의 두 번째 국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디아스 정권과 같은 특징은 혁명에 있어서 외국의 참여 확대와 역할이었다. 이번에 미국은 단연 규모가 가장 큰 참여자이며 기부자이다. 이 기간에 멕시코 외화수입의 중요 원천은 미국을 매년 방문하는 계절별 농업 노동자이며 멕시코로 온 미국관광객이

다. 멕시코에서 미국관광객의 총 소비액은 멕시코 상품수출의 약 70%까지 차지하였다. 1940-1957년 사이에 멕시코에 제조업과 상업분야가 주요 미국투자 대상이었는데 그 비율은 4.9%에서 58.5%로 증가하였다. 1950년 초 멕시코에서 가장 규모가 큰 25개 외국의 사업은 미국회사의 자회사들이었다. 30년 동안 미국에서 민간자본으로 멕시코정부에 대부된 첫 번째 자금은 1948-1949년에 양도되었다.

사실상 카마초 대통령과 그의 후계자들 정권 하에서 멕시코에서 경제적 발전은 사회정의와 민족주의에 우선하였다. 카마초 대통령의 두 번째 후계자인 코르티네스 대통령은 소규모 농가를 위한 정책을 다시 한번 펼쳤으며 부패로 회귀하려는 물결을 저지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카마초 대통령이 카르디나스 대통령의 정책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 것과는 달리 카마초 대통령과 알레만 대통령의 일반 정책을 바꾸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1956년과 1957년 멕시코 연방정부 예산의 반이 사회복지와 군사비용 대신에 경제발전에 할당되었다. 이 공공 비용은 사기업을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통신수단과 전력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배정되었다. 카마초 대통령은 산업개발에 모든 지원을 약속했으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대신 기업가들의 자본의 축적을 용이하게 하는 세제구조를 변화시켰다. 카마초 대통령은 최대한 많은 수의 소작농민들에게 할당하는 대신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경제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였다. 에히도은행은 이 사회적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1954년 보고에 따르면 모든 농장의 농민의 1/3정도가 대부를 받았는데 이 은행의 정책은 대부분의 농장의 농민이 소유하고 개간하는 빈약한 토지에 위험스러운 대부를 하는 것보다는 관개시설이 된 비옥한 토지를 담보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에히도은행의 이사는 말했다.²⁾ 이 정책의 결과 대다수의 소규모 농지 소유자와 농장

2) U. 루이스 U. Lewis, 『외교관계에 대한 심의회: 오늘날 남미 지역의 사회변동 in Council on Foreign Relation: Social Change in Latin America Today』(New York, 1961), 318-319쪽

농민의 75%가 기존의 정부의 용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계속 지역 대부분업자의 희생자가 된다.³⁾

지난 20년간 정부정책의 결과로 멕시코 국가 수입의 큰 증가는 수입의 분배에 있어서 참으로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이루어졌다. 최대의 몫은 새로운 상류 중간계층과 신흥부자 같은 자본소유주와 고소득업자에게 돌아갔다. 신흥부자들은 분명히 얼마 안되며 새로운 중간계층이 그것의 하위 부분에서 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이 계층은 전체 인구의 20%정도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 지금은 전체인구의 1%가 전체 국가수입의 51%를 소유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도 더 가난해지고 있다. 농업, 제조업, 그리고 정부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임금이 1939년과 1950년 사이에 27%에서 46%로 감소하여 빈곤층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생활의 물질적 빈곤은 악화되었다. 1940년과 1952년 사이에 멕시코 인구는 92%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빈민지역은 도시전체면적의 3.8 %에서 12.7%로 증가하였다. 1940년이래 건축붐이 일어났으나 그 혜택은 상류 중산층에게 돌아갔다. 그럼에도 1950년 6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빼 인구의 43.2%가 여전히 문맹이었다. 1950-1954년에 47%의 어린이만 학교를 다녔다. 중등교육이 초등교육보다 더 빨리 확대되고 있었다. 1960년에 인구의 60% 이상이 빈약한 의, 식, 주 상태에 있었으며 40% 이상이 여전히 문맹이었다. 45%정도의 어린이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첫눈에 이 비참한 사회상황은 국가 부의 획기적인 전체 증가에 비해 모순적인 결과로 보인다. 이 정도의 사회불평등의 고통은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멕시코만 이런 우울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 조국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영국인에게 이런 상황은 너무나 잘 알기에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이것은 20세기 중반 멕시코에서만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18세기, 19세기 전환기에 영국도 마찬가지로 상태였다. 영국에서 사회불의의 비참한 상황은 1차 세계대전까지

3) 루이스 Lewis, 같은 책, 319쪽

계속되었다. 당시 어린이였던 나는 그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성숙했다. 1914년 이후 반세기 동안 영국에서 더 심오한 사회정의의 방향으로 거대한 사회혁명이 일어났는데 다행히도 이것은 유혈사태 없이, 이전 특권계층을 아주 비참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졌다. 영국보다 더 늦게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든 멕시코와 다른 남미국가들에게도 영국과 같은 역사의 장이 펼쳐지길 바란다.

그러나 사회정의의 추세가 우리시대의 특징이며 지배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 사실이면, 사회정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수단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이 운동이 실패하게 되는가? 이 경제적 수단은 필수적이다. 경제적 수단이 없다면 사회정의의 비전은 현대기술이 발달하기 전시대의 유토피아적 꿈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생산의 획기적 증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힘든 노동과 긴축이며 지식과 기술의 적용 없이는 이루지 못하는 결실이다. 이 힘든 일은 인구의 모든 계층이 다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혁명 초기단계에서 성장하는 중간 계층은 바로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였다. 이 단계에서 이 중산계층이 사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 새로운 부의 확산에 장애가 된다. 즉 이 단계에서 이들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그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다른 새로운 계층 즉 산업노동자들에게는 부의 할당이 인색하게 돌아가게 했다. 이것은 비도덕적이다. 불행히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다행히 이것은 처음에 산업혁명에 들어간 나라들의 역사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단계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것이 나중에 산업혁명을 겪게 된 다른 나라에 이 단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남미 4개국의 현재 역사로부터 방금 조명해 본 문제는 확실하게 남미나 서반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이다. 과거에 문명의 혜택은 전세계적으로 대농장의 소수 세력가가 독점하였다. 같은 혜택이 정치적, 경제적인 혁명이 없다면 사회의 억압받는 다수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전통

적인 과두정치의 독재자의 정치적 권력은 붕괴되고 전체사회의 생산력은 증가되어야 했다. 이 두 가지 분야의 혁명은 새로운 계층인 중산층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간계층의 경험과 기술이 없었다면 이 두 가지 혁명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에서는 성취될 수 없었을 것이다. 사회에서 중간계층의 역할은 아마도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당연히 중간계층은 역할에 맞는 보수를 받았다. 중간계층이 산업혁명의 초기단계에 증가한 생산량 전체를 거의 소유하였다. 그 결과로 대다수의 인류는 중간계층의 혁명의 결과로서 더 나아진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다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변화는 단지 독점대지주에서 중간계층의 지배자로 바뀐 것뿐이었다. 민중이 간직하고 중간계층 혁명론자들이 키웠던 희망은 중간계층들이 대지주를 권력의 자리에서 추방한 후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순간에 바로 중간계층에 의해 좌절되었다.

1940년이래 멕시코혁명의 방향전환은 제도혁명당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선언되었다. 이 정당은 혁명적인 첫 국면의 마지막 10년 말기 이후로 정책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 유일한 정당으로, 결속의 어떤 파괴나 지속성을 깨지 않고 1930년이래 계속 정권을 잡고 있다. 1950년 제도혁명당은 공식적으로 “중간계층”의 “이상”⁴⁾을 선호하여 계급투쟁의 개념과 “노동자와 토지의 민주화”를 버렸다. 1957년 6월 소규모 농촌의 토지에 관심을 가진 멕시코 상원의 한 위원이 ‘멕시코의 토지 개혁은…완전한 실패작’이고 ‘토지의 등록에서…현재의 무정부 상태로 인해 농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⁵⁾ 라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한 종말이다. 그러나 인류가 집단 자살을 범하는 것을 삼간다면 역사는 끝이 나질 않을 것이다. 사회정의와 경제적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은 멈출 것 같지 않다. 사회정의와 경제적 효율성을 촉진시

4) J. J. 존슨 J. J. Johnson, 『남미지역의 정치적 변동에서 나타나는 개입요소 Political Change in Latin America: The Emergence of the Middle Sectors』 (Standford, Cal.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58), 147쪽.

5) 뉴욕타임스 (1957년 6월 25일)

키려는 움직임은 공동역사의 첫 장에서 서로 상반관계에 있었다. 사회정의의 확대는 경제적 생산성에 불리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경제적 생산성의 향상은 사회정의를 이루는 데 불리하였다. 하지만 이 갈등은 단기적으로 인류의 수행 능력이 둘 중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아직 부족한 단계에서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는 두 분야의 움직임은 분명히 상호보완적이다.

인류경험은 사회정의는 경제적 생산성의 증가 없이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다. 증명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대에 멕시코, 과테말라, 볼리비아 그리고 아마도 쿠바의 역사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경제적 생산성이 사회정의 증진과는 관련 없이 많은 진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바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멕시코의 현재 상황에서 잘 나타난다. 인류의 유일한 궁극적인 자본 자산은 신체적, 지적 그리고 정신적인 인간의 능력이다. 이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인간 외의 거대한 자연적 힘을 이용한 주요 동력원이다. 자연의 효과적인 이용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이 없다면 인간의 능력은 단지 잠재적인 것으로 머문다. 이 필수적인 수단은 넓은 개념의 복지이다. 인구의 반은 여전히 가난에 찌든 문맹의 제조업, 농업의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이 지역사회의 주요한 경제원동력인 잠재적 자원의 반은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정의는 궁극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어느 한 쪽을 잘 알지 못하면 그 둘 중 나머지 하나도 알 수 없게 된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정의의 증진이 서로 보완하며 화합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물론 우리는 이 균형을 이루는 데 실패할 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볼리비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 파산이거나, 멕시코에서 볼 수 있는 사회불안일 것이다. 그러나 불균형으로 인한 이런 불행한 상태는 어느 것도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다. 멕시코의 현 상황은 볼리비아의 상태와 같은 상황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이며 반대로 1910년의 멕시코혁명은 오늘날의 멕시코

상태와 같은 상황에 대한 반동이었다. 소수가 몇 십 년 혹은 심지어 몇 세기 동안 문명의 혜택을 독점하는데 성공할지 모른다. 로마제국 시대에 중간계층은 약 2세기 반 동안 프롤레타리아들을 억압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혁명적인 사회 폭발이 일어났고 너무나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기에 더 거세었다. 오늘날 남미지역에서 이 폭발은 멕시코와 과테말라에서는 잠정적으로 억눌린 상태이다. 그러나 쿠바에서는 거대한 힘으로 일어났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언제 어디서건 중간계층이 사회의 안전판을 누르려고 하면 곧 하늘 높이 터지는 인과응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야만스런 분쟁 해결 방법이며 전체로서 사회에도 이롭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는 중간계층을 제거할 수도 없는데 이들이 사회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필수적인 경험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안 점은 중간계층이 자발적으로 산업과 농업의 노동자계급이 중간계층의 생활수준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는 곳에서 이것은 어느 한 계층을 제거함으로써가 아닌 두 계층의 융합으로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든다. 다시 말해 이 정책은 사회가 계층간의 반목으로 사회정의와 경제적 생산성을 이루려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하지 않고 평화로운 협약으로 이층의 목적을 성취하게 한다.

미국은 이미 이런 건설적인 방침에 따라 자국의 생활에서 인류의 주요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서유럽도 가까운 장래에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평등하게 나아갈 것처럼 보인다. 물론 모든 인류의 생활방식은 매우 불완전하며 자기만족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인구의 5~10%는 아직도 사회 불평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빈곤에 허덕이는 다수보다 더 나쁜 경우는 가난한 소수로 남는 것이다. 궁핍한 다수는 적어도 수에서 오는 잠재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어서 절망적인 상태로 몰리게 되면 절망을 표출하기 위해 도전을 할 힘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한 소수는 무력할 뿐이다.

가난한 소수의 유일한 희망은 부유한 다수의 양심의 민감함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인간의 양심은 양심을 자극해 줄 악마가 없다면 둔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신화의 전통적 악마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악마가 사라지자 인간은 제때에 메피스토의 자리를 차지하여 그의 악마로서 인간의 양심을 자극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오늘날 칼 마르크스가 비 공산주의 세계에서 종교적 수호악마이며 피델 카스트로는 남미 지역의 종교적 수호악마이다. 내가 보는 바로는 그들의 출현은 적절했다. 만일 서구의 생활양식에서 이들 유명한 수행자들이 인류에게 공포를 일으켜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인류의 양심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았었다면 인류는 지금보다 더 고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2. 남미 지역의 혁명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주제는 현재 남미의 혁명이다. 이 자리에서 이 주제에 대해 다루자니 대담해져야겠다고 생각되기에 나의 임무가 예상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남미의 언어도 하나 모르는 유럽인으로서 남미에 대해 남미인들 에게 강연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다. 이 점에서 나의 자격은 가장 부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시작에 앞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어느 정도 준비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자료를 여기 탁자 위에 놓겠다.

나는 남미 여러 나라를 즉 20개국 중 6개국을 방문했다. 지금 남미의 푸에르토리코에 있으니 그 수를 분명히 하면 정확히 남미 21개국 중 7개국을 지금까지 방문했다. 오늘 우리가 방문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을 배후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카리비안 해상의 이 섬이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의 거류지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현실을 상기한다면 결국 푸에르토리코 연방은 거대한 브라질에 비길 만하다. 그러나 7개국은 전체 21개국 중 단지 1/3에 불과하다.

내가 방문했던 국가는 멕시코, 과테말라, 파나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다. 보시다시피 나의 방문국가는 선택적이다. 남미의 6개국 중에서 4곳을 방문했는데 이곳은 그들의 현재 인구의 신체적 특성에서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북미 2개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인구는 압도적으로 대서양 건너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4곳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였다. 북미의 두 나라를 유추함으로써 멕시코에서 파라과이까지를 포함하는 일련의 '원주민 중심의 남미' 국가들-이렇게 불러도 된다면-중 한 국가보다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의 지리학적 연속성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주엘라의 유럽 인구 집단에 의해 끊겼다. 유추는 결코 직접 관찰을 대신

하지 못한다. 지적인 도구로서 유추는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유추를 통해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가능하다. 한정된 기회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를 유추하는 간접경험으로는 알 수 없어 직접 관찰해야 되는 나라를 방문하였다.

남미인들의 삶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무엇인가 나 자신의 민족적, 사회적 배경에서 유추하여 평가할 수 있는 공통적 요소들이 모든 남미의 국가들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내가 옳다면 현재 남미 혁명의 한 가지 특징은 혁명 이전의 남미사회의 구조의 영향이 좋은 나쁜든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 전통적 생활방식은 와해과정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동시에 이것이 현재의 동요를 일으킨 여러 촉진제 중에서 중요한 요소인 것도 분명하다. 남미의 중간계층의 발전과정을 생각해보자. 이것은 내가 나중에 고쳐야 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계층처럼 보인다. 이 계층의 근원은 고전적 의미로 변호사, 의사, 학위 받은 사람처럼 소수의 교육받은 지식인들로서 식민지시대에서 중간계층의 유일한 대표들이었다. 오늘날 남미의 중간계층의 핵심인 지식인집단은 새로운 유형의 중간계층의 사람들로 강화되었는데 이들은 소위 말하는 ‘지적 직업’에 종사자가 아니라 상업과 산업에 종사하여 생계비를 버는 사람들이다. 이전의 중간계층의 핵심은 이 새로운 구성원들로 채워져 지금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전형적인 중간계층의 전통은 내가 보기에는 덜 세련되었는지 모르나 더 규모가 크고 실용적인 생각을 가진 남미의 중간계층의 사고방식에 상당히 남아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 자신이 이 중간계층에 대응할 수 있는 영국의 전통적 핵심인 중간계층에 속하기에 나의 개인적 역사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남미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받은 교육도 매우 전형적이었으며 영국에서 나는 이 전통적 문화의 와해가 지금은 내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반 정도 이질적인 분야인 상업과 산업에 종사하는 중간계층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아왔다. ‘반 정도 이질적’이란 말은 바른 표현이다. 나는 아버지 쪽으로 상업이나 산업에 종사했던 조상이 없었으며 지금까지는 이 새로운 중간계층의 활동 영역에 종사하는 후손도 없다. 그래서 남미

의 중간계층의 역사가 나에게 완전히 낯선 것이 아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 모르는 근대 남미에 대한 세 번째로 관심을 끄는 요소가 있다. 나는 일반 교양교육 덕분에 로마의 역사를 꽤 잘 알고 있다. 남미의 사회구조와 현재 진화과정의 구조를 연구하려고 했을 때 나는 고대의 이탈리아 상황에서 알고 있었던 특징들을 상당히 발견하게 되어 매우 의미가 깊었다.

전통적 남미의 생활에서 뚜렷한 두 가지 특징은 가장 넓은 범위의 대가족의 사회적, 심리적 유대와 도덕적인 결속에서 친족과 감정적으로 비견할 만한 보호자-피보호자 관계다. 하지만 이 보호자-피보호자관계는 이 관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꽤 심한 경제적 착취와 사회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내가 본 바로는 사회적으로 정제된 과거의 이런 제도들은 아직도 오늘날의 유동적인 남미사회에 영향을 준다. 이 제도들은 위장된 형태로 존재하거나 현재 남미의 상업 작물 농장과 내가 감히 두개의 명칭을 합성해서 만든 신흥 대도시의 뿌리 뽑힌 노동자들에게 오늘날의 병폐의 한 원인인 심리적인 공백을 남겼다. 보호자-피보호자 관계는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흐르는 거대가족의 형태이며 로마의 ‘핵’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로마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남미에서 발견하게 되나.

그리고 남미에도 대농장의 소수 세력가가 있다. 이들은 사멸되어야 하는 운명이지만 그 존재를 없애기가 어려우며 상업과 산업에 종사하는 ‘신흥부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도제도에서 이전의 스페인 제국의 지배당시 이주한 크리올의 토지 권력자들은 물러난 왕정의 지위를 차지하여 스페인 제국을 이은 남미 국가들이 독립한 이후 일 세기 이상 세력을 잡았다. 남미독립전쟁은 미국과 프랑스혁명의 새로운 사상의 도입으로 전형적인 지식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지식인들은 이 외국어로 새로운 국가의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막상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대농장의 세력가들이었다. 중간계층의 지식인들이 주저한다면 -그리고 주저할 때는- 이 세력가들은 군사

적인 지배력을 휘두름으로써 이들을 복종시켰다. 좌절한 진보주의 지식인들의 대표자들은 소수의 세력가들에게 그들의 존재가 낯선 것처럼 그들에게 문화적으로 낯선, 새로이 형성된 사회구조에 적응할 때까지 이 권력에 반발할 힘이 없었다. 만일 이 소수 세력가들이 지금 승산 없는 전투에서 마지막 방어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 이것은 전형적 지식인들, 중간계층의 새로운 상업과 산업의 종사자들, 산업근로자들의 새로운 계층의 공동저항에 기인한 것이다. 이 새로운 요소들은 일부 자생된 것이고 일부는 해외에서 들어온 것이었다. 메스티조와 유럽 이주자들이 이 새로운 요소의 주요 구성원이다. 국내와 해외로부터 온 이주자들은 급속히 증가하는 남미의 도시들로 유입되고 있다.

소수 지배자의 전통적인 권력의 독점은 경제적 기초가 그들의 기반을 이루는 한 사라질 리가 없다. 이것이 대 농장 라티퐁다아의 해체, 즉 하시엔다의 와해가 현대 남미 역사의 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남미에서 토지개혁은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변화에 있어서 필수적 출발점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한 미국의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겠다.

‘생산의 단위가 너무 크거나 작다. 그래서 소유권과 점유는 종종 불확실하다. 지역사회는 전통에 얽매이고 변하지 않고 있다. 농장의 노동여건은 농노제도와 많이 달라진 것이 없으며 자원으로서의 토지는 축적은 되지만 거래는 안되며 소작농에게는 이전이 불가능하다.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토지소유계층으로 점차 옮겨갈 수 있다는 면을 볼 때 “토지 소유권의 체제”는 없다. 토지 소유자와 무 소유자는 엄격한 인종과 문화의 계층 간 장벽에 의해 종종 분리된다. 이 체제로 인하여 현 상황은 강화되고 상속받은 지위와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권력이 부여된다. 농장투자는 저조하며 소비재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남미국가들에 있어 많은 인구는 경제 주류의 가장자리에 있다.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이동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⁶⁾

라티퐁디아의 부적합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은 참으로 그들의 광활한 공간에 훨씬 넘어서 있음을 느끼게 한다. 라티퐁디아의 과거의 압박감이 거의 모든 남미국가에게 심각하게 놓여 있다.

‘소규모 라티퐁디아의 형태는 독립적이지 않고 종종 밀접하게 상호관련이 되어있다. 거대한 토지는 많은 작은 농가인 란초스, 차크라스, 외르테스, 이퀘라스, 시티오스에 의해 둘러싸이고 이들로부터 계절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많은 방법에 있어 소규모 라티퐁디아 제도의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라티퐁디아의 영향력은 그들 자신의 영역을 훨씬 넘어서서 종종 지역의 개발에 제한을 가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⁷⁾

예를 들어 경제활동의 낮은 수준에서 라티퐁디아의 경제적 자립정책으로 인하여 지역의 마을이 상업적으로 개발되지 못한다. 이것은 수출상업 작물을 생산하는 농장의 개발과 도시 산업 개발의 지체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남미국가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라티퐁디아의 해체는 첫 번째 필수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이 필수적인 혁명적 조치가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된다. 라티퐁디아의 해체가 본질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가? 혹은 단순히 소작농에게 토지를 할당함으로써 사회정의를 행하는 것이 여러 대체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인가? 아직 존재하는 비옥한 처녀지를 완전히 개방하고 농민들을 유입시킴으로써 라티퐁디아를 살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비용이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진보는 더 천천히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폭발을 일으키는 토지개혁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며 국가가 개발하지 않은 잠재적 국가 자산에 생산

6) T. F. 캐롤 T. F. Carroll. 『남미지역의 토지개혁문제 The Land Reform Issue in Latin America』 A. O. 허치먼 A. O. Hirschman <편집인>, 『남미지역의 문제 Latin American Issues』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 1961), 176쪽

7) 캐롤 Carroll 같은 책, 167쪽

성을 부거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향상시킬 것이다. 라티퐁디아의 해체를 피하기 위한 논쟁은 그럴 듯하다. 기득권을 가진 라티퐁디아 소유자들의 정치세력은 대단하다. 게다가 몇몇 라티퐁디아가 상업 작물을 생산하는 효율적인 현대적 대농장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 문제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경제적 혁명을 일으킨 몇몇 기업가들은 상업 작물 생산지로 전환된 소유지를 세습 받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토지를 구입한 외국인들이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새로워진 대농장은 지금도 옛날방식으로 경제적 탄성이 낮게 경작되고 있는 라티퐁디아와 비교하면 그 면적이 더 작을지 모른다. 그러나 새롭게 전환된 대농장들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이 대농장은 수입을 위해 필요한 외화의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수입품들은 산업개발에 필요한 자본재와 극소수의 부유한 자들이 수입한 사치스런 소비재이다.

라티퐁디아의 재분배에 대한 저항은 대단했으며 불행히도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다. 1961년 남미 전체단지의 토지 소유자 중 10%의 여전히 평균 9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 평가가 비교적 정확하다면 남미의 토지소유권 집중도는 비교할 만한 크기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높다. 1961년 남미에서 기껏해야 20헥타르 정도 땅을 경작하는 농부들이 전체 소유자의 72.6%를 차지한다고 추산되는데 이것은 전체 토지 면적의 3.7%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1,000헥타르 이상을 운영하는 농장은 전체 농부수의 1.5%에 지나지 않는데 전체 토지의 64.9%나 차지한다. 이것은 다른 면에서는 아무리 다를지라도 토지 자본의 중요성이라는 점에서 서로 비슷한 처지의 많은 남미국가들에서 여전히 토지 소유의 압도적인 집중을 보여주는 현저한 예이다.

‘과테말라에서는 모든 농장의 0.15%인 516개 농장이 41%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에콰도르에서는 전체 중 0.17%인 705 농장이 37%의 농지를, 베네

주엘라에서는 1.69%인 6800개 농장이 74%인 1,000헥타르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농토의 반이 전체 토지 소유자의 1.6%에 속한다. 니카라과에서는 362명의 소유자가 농토의 1/3이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집중도는 토지개혁 전의 볼리비아에서 볼 수 있다. 5,500개도 안 되는 농장이 92%의 토지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전체농가의 6.4%에 해당한다.’

멕시코와 쿠바의 상황은 유사하다. 그리고 이 두 경우는 특히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멕시코에서 토지의 재분배는 영구적 혁명의 진행과정 처음 30년 동안 이 혁명의제의 첫 번째 항목이었다. 이 30년 중 후반기 6년은 카르디나스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이때 토지의 재분배는 대통령직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공평무사한 정치가에 의해 사실상 성실히 수행되었다. 하지만 카르디나스 대통령은 멕시코의 토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였다. 그의 실패는 1950년과 관련하여 다음에 발표된 수치에서 나타난다. 이 해에 단지 29.2%의 농장농민이 26.5%의 토지소유자이면서 운영자인데 비해서 42.2%의 멕시코 농민들은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다. 1% 미만의 민간소유농장이 전체 농장토지의 76%를 차지하였다.

쿠바의 경우 1959년 5월 토지개혁법은 나머지 남미에서 개혁을 하기 위한 기준과 속도를 정한 현재의 쿠바혁명의 조항 중 하나가 되었기에 중요하다. 쿠바에서 혁명 이전의 토지상황은 개혁을 바라는 절실한 요구를 낳았으며 지금은 나머지 남미국가들에 있어서 마찬가지이다. 1946년 쿠바에서 69.6%의 농장이 25헥타르밖에 관리를 못했고 총경작지의 1.2%를 소유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1,000헥타르에 달하는 농장이 전체 경작지 면적의 36.1%를 소유하였는데 이것은 전체 농장수의 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쿠바에서 혁명이 발발할 때 농토로 경작 가능한 약 절반이 경작 중이었다. 농업노동자의 만성적인 실업과 동시에 해외로부터 대규모 식량이 수입되었다.

혁명 전 쿠바에서 경작 가능한 면적의 약 1/3을 사탕수수 대농장이 차지하

였다. 사회적으로 진보가 늦었던 쿠바는 경제적으로는 남미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쿠바의 대규모 농장들의 많은 비율이 경제적 탄성이 낮은 자급자족형 하시엔다에서 수출용 상업 작물을 생산하는 효율적인 플랜테이션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쿠바혁명이 농업정책면에서는 멕시코와 볼리비아의 혁명 또는 실패로 끝난 과테말라 혁명의 전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쿠바가 농업인구에 대한 사회정의의 이행과 농업생산성의 유지를 결합하는 것이 더 건설적인 시도인 것 같다. 쿠바의 국립농업개혁원은 라티퐁디아로부터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재빨리 빼앗았으나 그것을 분배하는 데는 느렸다. 1959년 5월에 통과된 법안에는 효율적인 농업과 협동조합의 조직들과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1959년~1960년에 쿠바의 농업생산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쿠바의 전개과정은 볼리비아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마도 지금까지 남미에서 사회, 경제적 진보를 심각하게 막았던 토지정책에 있어 방해물을 제거하는 데는 50메가톤의 혁명적 폭발력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토지소유자는 적절한 토지재분배와 토지세를 거부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들이 관리하는 거대한 면적의 토지이용의 성과는 빈약하다. 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효과적으로 경작하게 하는 상업 작물 플랜테이션은 현재 대규모의 경작 가능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상태다. 쿠바만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50년 과테말라에서 1,000헥타르 정도의 토지를 소유한 농부들은 그들의 소유토지 중 평균 5%만 경작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모든 농민들과 경제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소규모농장의 소유주들은 잠재적으로 비옥한 처녀지를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효율성과 재정상 형평을 위해 라티퐁디아를 확실하게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인용하는 미국의 권위자는 말하기를 이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으로 농민을 이주시키는 계획은 지금까지는 많이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이 계획이 남미의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잠재적 생산량의 증가 면에서 기존의 지역은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하며 더 신속하고 비용이 덜 드는 가능성을 제공한다.’⁸⁾

새로운 소규모 토지소유가 배치된 곳에서는 이들이 농지를 분할 받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토지를 경작하기 위한 도구가 제공된다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한 것이다.

남미의 토지문제의 현재상황을 설명하면서 앞서 로마를 언급한 것처럼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적 나의 입장을 세울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로마에서 UN의 식량농업기구의 현재 미국인 직원에 의존하는 대신에 나는 고대 로마의 역사가의 말을 이용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시 로마의 역사는 현재의 남미의 상황을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로마에서도 과두정치가 패망한 군주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로마에서도 이 과두정치가 상업 산업요소인 신흥부자, 새로운 중산층, 새 도시의 새로운 프롤레타리아가 연합한 노력에 의해 밀려났다. 로마시도 현재의 남미의 도시들처럼 이민자들의 두 갈래 유입으로 인해 거대하게 불어났다. 로마의 경우에 이민의 한 갈래는 이탈리아의 농촌에서 왔으며 또 다른 하나는 고대로마가 지배했던(유럽의 동부 지중해 연안제국인) 레반트에서 왔다. 고대 로마 역사에서 과두정치는 고대 왕조에서 보다 훨씬 더 완강하게 권력을 유지하다가 사라졌다. 티베리우스 크라쿠스의 토지개혁에 의해 촉발된 혁명은 점점 더 거세게 일백년 동안 퍼져나갔고 지중해 연안의 세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급기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를 거의 평정했다.

가방을 열고 나의 자료들을 보여드렸으니 나의 작업을 계속 해야겠다. 나보다 강연 주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재단의 회원들에게 강연하는 것이 신경 쓰여서 차선책으로 일련의 의문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 방법이 푸에르토리

8) 캐롤 Carroll 같은 책, 197쪽. 200쪽R.

코 대학과 웨더헤드재단이 내게 요청한 이 계획에 대한 답이 되기를 바란다. 그들이 나에게 이 강연을 요청한 목적은 강연을 토론으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첫 질문은 변화하는 사회의 구조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로는 정치적, 사회적 대변동의 가능성이 내포된 남미경제의 불안정한 요인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남미는 20개 또는(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면) 21개 정치적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남미에 다양성의 균형을 이루는 어떤 일관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 다양성은 확실하고, 정치적 수준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다. 나는 인구구성의 신체적 특징에 있어 콜롬비아시대 이전의 주로 원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나라들과 유럽인 중심의 국가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이미 언급했다. 다행히 남미에서 이러한 인종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것은 남미에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남미사회의 전통적 구조는 물론 수직적이다. 그러나 계급은 폐쇄적 신분제도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재의 경향은 점점 유동적이다.

인디언이 섞여 있는 남미 사회의 예를 들어보자. 분명히 이 지역사회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으며 스페인 정복 이전에 이미 수 천년을 살아왔던 나라에서 일반 국민의 생활에 영입되지 못하는 낮은 세계로 남아있다. 그러나 내가 옳다면 예를 들어 페루에서처럼 원주민 여자나 남자 각각은 원주민 세계에서 현대세계로 쉽게 옮길 수 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개인은 3가지 요소를 충족하기만 하면 된다. 스페인어를 배우고 현대적 복장을 하고 그리고 원주민마을 공동체에서 도시로, 더 좁은 범위로는 상업 작물을 생산하는 대농장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전에는 원주민이었던 한 젊은이가 행운이나 공적으로 인해 출세한다면 그는 공화국의 대통령이나 전통적 소수 세력가의 사위가 될지도 모른다. 일단 여기의 일원이 되면 모든 기회가 그에게 열려 있고 가입조건도 엄하지가 않다. 이런 조건이라면 몸속에 아프리카인의 피가 흐르는 미국의 모든 시민은 오래 전에 동화되었을 것이다. 남미의 아프리카인들은 사실상 잘 동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모든 원주민이 다 잘 적응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마을에서 거주하는 일반 국민으로서 생활에 동화되지 않는 못한 채 남아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쉽게 다른 세계로 ‘통과’함으로써 동화과정은 이미 많이 진척이 되었다. 쿠바에서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도 오늘날 인구의 대다수는 라디노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대적인 삶의 방식을 이끄는 라디노스는 메스티조스나 인종적으로 순수 인디안으로서 스페인어를 말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들 두 국가에서 메스티조스는 남미화 된 원주민과 아직 남미화 되지 않은 원주민을 포함하는 순수 인디안 동포를 수적으로 능가한다.

문명화된 인디안들은 고유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멕시코, 과테말라 혹은 페루와 같은 남미 사회로 유입되면서 그들 자신의 문화도 함께 가져왔다. 나는 이 원주민사회의 모습을 어렵풋이나마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테완테펙 원주민은 용모와 복장이 아시아에서 온 진짜 원주민이나 유카탄과 북 과테말라의 마야, 라스 카사스 고원에 사는 차몰라스 그리고 쿠스코 주변의(원래 잉카문명권의 공용어인) 케츠와어를 말하는 원주민으로 착각하기 쉬우며 이들의 다양성은 여행객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유럽인의 피가 흐르는 오늘날의 멕시코의 지식인들은 콜롬비아 이전 시기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다. 코히테목은 영웅이고 코테스는 악인이다. 내가 듣기로는 멕시코에서 코테스의 동상은 금지되어 있다.(생각해보니 영국에서 정복자 윌리엄의 동상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할 수 없다) 콜롬비아 이전의 중앙아메리카의 예술은 우리 시대의 뛰어난 멕시코의 예술에 영감을 주고 있다. 유럽계 남미의 국가에서 다른 혈통의 유럽 이민자들은 유사하게 분화되는 영향을 받았는지 모른다. 어쨌든 남미의 각 국가는 점차 특유의 국가적 특성을 띠고 있는데 아마 전체 남미의 인구가 인종적으로 하나였어도 이런 현상은 일어났을 것이다. 생활방식의 전개에 있어서 경험은 인종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남미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국가들은 같은 지역 내에 있으면서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다소간 분리된 삶을 살아오고 있다.

남미의 국가들은 그들의 통신수단이 불충분하여 계속 고립되어 살아왔다. 이 고립은 마침내 항공교통 시대의 출현으로 지금은 극복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도 남미국가들의 총 국외교역의 10%만이 서로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는 달리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남미지역은 인구가 해안가 주변의 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어쨌든 지금까지 많은 남미도시들은 남미의 다른 나라들과의 왕래는 말할 것도 없이 자국의 다른 도시보다는 뉴욕, 런던, 리버풀, 함부르크 또는 브레멘과 더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전체로서 세계에 가깝게 얽혀있는 통신망을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 나라들은 여전히 비교적 서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 계속되는 고립은 경제적 발전에, 특히 남미의 산업 성장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 중앙아메리카와 서인도 제도의 일부인 엔틸리스 제도의 작은 남미의 국가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남미 국가의 경제적 구조의 평균규모는 태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토착산업을 위한 국내시장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작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다. 브라질은 거인이고 멕시코는 경제적 활동가다. 멕시코처럼 브라질도 미국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남미의 대부분 국가들은 교역국들의 산업을 위한 공동시장을 제공하기 위해 이웃국가들과 협력할 수가 있다면 이 국가들은 초기의 토착산업의 전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노선을 따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시도는 얼마나 천천히 그리고 주저하면서 전개되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이 '진보를 위한 동맹'을 위한 계획을 출범시킨 1961년 3월 13일 백악관 연설에서 남미에서 경제적 통합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이것은 적어도 새로운 길조의 요소이다.

남미의 국가 사이의 상호 고립과 다양성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적어도 두 가지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험들은 남미의 미래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

20개국 중 18개국 또는 푸에르토리코를 넣어 21개국 중 19개국이 스페인제국을 이은 국가들이고 이 국가들 모두 모국으로부터 공동의 언어와 습관, 사

상, 이상에 서 공통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계 남미 국가를 다녀온 후 19개국 사이에 현재의 차이점을 충분히 주지한 후 당대의 평자는 안달루시아의 세빌라에서 인도제국의 기록문서보관소를 공식 방문하려고 할 것이다. 이 놀랄 만한 기록의 수집은 이 연구자가 시대를 거슬러 과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렌즈의 역할을 한다. 그가 들여다 볼 때는 현재의 관점으로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이 19개국들을 거슬러 보면 한 군데 모이다가 소멸지점에서는 모두 합쳐진다. 물론 거대한 브라질은 이 스페인계열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브라질의 유럽의 조상은 19개 스페인계 남미국가의 유럽 조상과 광범위하게 공동의 과거를 공유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코르도바의 칼리프의 영토와 그 이전에는 로마제국의 문화적 배경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

남미국가의 두 번째 공동경험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경험은 과거로부터의 유산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모든 남미국가들만이 서로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대 세계의 더 큰 지역과도 공유하는 경험이다. 남미국가들은 인류의 사회, 경제적 진보에 있어서 북미와 북서유럽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소위 저개발국가라는 오래 계속되면서 점점 더 길어지는 행렬에서 행진하고 있다. 이 행렬에서 모든 국가는 균열된 땅에서 강요된 행진을 한다. 이것은 지루하고 대단히 힘든 경험이다. 영국의 관측자는 이 경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심정적으로도 이 경험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국이 이제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과급된 산업혁명으로 인한 후유증에 휩쓸렸던 18세기, 19세기 무렵에 겪은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력과 고통의 경험은 이념적인 차이점들보다 더 강한 결속력을 다지게 한다. 소위 말해 몇 개의 저개발국들의 국민들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에 가담하게 되고 다른 나라들은 사유재산의 자유의 편에 섰다. 하지만 대다수는 중립의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나는 공식적으로는 공산주의 편에 선 꽤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혁명의 진정한 실체를 보려 한다면 남미에서의 현재의 혁명을 고찰해야 하는 것은 거의 전 세계적인 기본

틀이다. 혁명의 모습의 지배적인 특징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일반적이기에 전체 남미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난다.

이 모습은 한 가지 일반적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의 특별한 특징들은 너무나 많은 변이들이 있다. 세계의 사분의 삼인 나머지 저개발국가처럼 남미는 변동이 제외된 고정된 전통적 생활방식을 고수하는 사회였으나 변동이 일반화된 역동적인 생활방식의 사회로 바뀌어 왔다. 전통적 생활방식은 경제적, 사회적 수준이 낮은 곳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에서는 고통을 받는 계층은 좋은 나쁜 것 적어도 그들에게 닥칠 일들을 알 수 있었기에 확실성을 갖고 살 수 있었다. 혁명적 생활방식은 이것의 희생자들을 빠른 속도로 불가사의한 미래로 밀어낸다. 이런 매력은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의 인식이며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이다. 반면에 그 위험을 뒤돌아보면 구체제를 비교에 의해 황금시기처럼 보는 오해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구체제의 정신은 단념으로 진정시킨 우울증이었고, 혁명의 정신은 희망에 의해 활기를 띠는 동시에 실망에 의해 좌절되는 열망이다. 과거에서부터 그런 갑작스런 변화인 이 후자의 분위기 속에 살 때 현재의 남미는 전형적인 유아기이다.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경향의 삶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에 동시에 맞서야 한다. 그들은 근절, 도시화 그리고 경제적 실패에 맞서야 하는 것이다. 투쟁을 하고 있는 계층의 경제적인 뒤편에서 오래 지체되고 얻기가 어려웠던 진보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상태를 처음보다 더 악화시키는 갑작스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세계시장에서 외화의 소득원인 생활용품의 생산량 증가를 위하여 국가가 기울인 노력은 국내 혹은 그 밖의 다른 곳에서의 생산량 증가나 또는 해외에서의 수요 감소로 인한 세계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소용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마을공동사회와 대농장인 하시엔다가 존재하던 구세계에서 물질적으로 거의 기아선상에 살고 있는 소작농은 그의 위치가 신분 계층적 사회 안에서 분명하였기에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느꼈었다. 그는 넓게 분포된 가족의 한 구성

원이었다. 그는 보호자의 비호를 받았고 그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교구 목사가 대리하는 교회의 아들이었다.

나는 멕시코고원의 프에블라 교구에 있는 화려하게 장식된 바로크 식의 한 교회에 앉아 이 교회를 돌보는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나는 ‘돌보다’라고 표현한다. 그들에게 교회는 단지 돌, 나무, 석고로 만들어진 생명이 없는 건축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살아 있는 창조물이며 아이들과 애완동물과 같은 가족의 구성원이었다. 한 마을사람이 석고로 된 천사의 머리 도금을 손질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낫쇠를 닦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은 종의 울림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들의 교회는 그들 지역사회 생활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애정을 만족시키는 대상이었다. 분명히 이것은 행복을 이루는 삶이었다.

노동절 날 다른 멕시코 마을에서 나는 내가 두 세계 사이에 있음을 깨달았다. 문밖의 광장에서 남자들은 마을 밴드의 흥겨운 음악소리를 들으면서 대중 집회를 열어 이 오래된 성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교회 안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이 차례대로 각각 존경하는 석고상에 그들의 존경을 표시하면서 성인들 주위를 돌고 있었다. 이 교회는 특히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있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휴일을 보내는 방식에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현대화는 공동체인 마을에서 혹은 대농장인 하시엔다에서 열대 농장이나 도시로 이주를 의미한다. 이주는 농민의 뿌리를 잘라 놓는다. 그는 결과적으로 농촌이란 보호자를 잃어버리고 교회도 또한 잃어버린다. 이 백년 전 사회정의의 위한 서구의 움직임이 종교적인 삶에서 세속적인 삶으로 흘러들기 시작했을 때 카톨릭교회도 다른 서구 기독교국가의 기존의 교회도 교회의 내부에서 시작되었던 사회정의의 움직임의 확대되는데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이들은 관습적인 교회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세속적 사회정의의 명분을 위한 종교의 임무를 냉담하게 등한시켰기에 종교에 아주 적대적이지는 않았으나 무관심한 보통사람들이 정의를 이루기 위해 선봉에 서야했다. 기존의 교회와 세

속적인 사회정의를 위한 움직임 사이의 틈은 서구세계에는 비극이 되었다. 그래서 세계 전체로 보면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서구가 비서구의 다수의 인류를 간신히 이끌어 오고 있다. 종교와 세속적 사회의 이상주의 사이에 일어난 갈등은 세계의 모든 곳에 모습을 드러내어 오늘날은 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양측에서 행해졌으나 갈등의 차이를 좁히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 불행한 상태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소작농민은 관습적으로 내재된 그의 정신적, 심리학적 지지를 대부분 잃어버리기 쉽다. 카르디나스 대통령은 혁명적인 대통령이 정당하게 토지에서 퇴거시킨 대농장인 하시엔다보다는 더 공평하고 자상한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헤시엔다는 가까운 데 있었고 대통령은 멀리 있었다. 도시로 몰려든 소작농민들은 정치적 정당이나 노동조합이 대통령보다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지 모른다. 이 새로운 세속적 조직은 사실상 교회가 필요했었던 만큼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될 지 모른다. 그러나 비교적 평범한 이 조직은 소작농민의 사상과 애정을 거의 독차지했던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비록 소작농민이 자발적으로 농촌을 떠나도 그 의미는 추방과 다름없고 이 도시의 추방지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빵이 아니라 찬 돌멩이다. 심리적으로 그들은 상당히 고통스럽다.

이 비극의 물질적 배경은 도시화다. 인구의 도시이동은 지금은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는 1956년과 1957년 17개월의 세계여행에서 나는 페루,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에서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삶의 모습은 지역에 따라 달랐을지 모르나 도시화의 비극적인 상황은 같았다. 나는 이것을 아르키파의 페루 고지대 오아시스에서 가장 통렬하게 느꼈다.

아르키파는 내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분명히 여기 이 모임의 참석자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활기찬 분위기, 파란 하늘, 세 개의 커다란, 그러나 단아한 모습의 화산들이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곳에 쌓여 있는 하얀 눈, 물이 멈추는 경계선에 놓여 있는 단조로운 바위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관개가 잘된 초록의 땅 등이 모두가 우리가 모퉁이를 돌아 아름다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빈민촌을 보게 될 때까지는 매우 매혹적인 곳이다. 아르키파의 경제적 능력은 지세로 인해 관개시설이 필요한 환경의 제약으로 고질적으로 개발이 한정되어 있다. 관개와 경작이 가능한 모든 땅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용되어 왔다. 제한된 농지는 제한된 규모의 도시교역과 상업만을 지탱할 수 있다. 아르키파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도 더 높은 고지대의 동부지역에서 온 원주민들은 보수가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아르키파의 새로 생긴 근교의 빈민가에서 비참하게 살게 되는데도 그들 선조의 소규모 농장인 미니퓌디아를 떠나고 있다. 시 당국은 이 상황을 무단 거주자들에게 이해시키려 하며 선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설득은 소용이 없다. 누구라도 찾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엘도라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이다. 동남쪽 페루의 고지대에 사는 농민들에게 엘도라도는 아프키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음해에 나는 바그다드에서 헛된 기대에 차서 또 다른 빈민촌으로 몰려들고 있던 소작농들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본 가장 큰 남미의 도시는 멕시코시티이다. 나는 거대한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아주 큰 도시인 상파울루와 리오를 가보지 못했다. 내가 언급한 남미의 네 개 도시는 미국이나 유럽의 가장 도시화된 지역들로 변했다해도 큰 도시들로 분류될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크기가 도시의 잠재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기준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가 그 나라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이다. 이 기준에서 보면 더 작은 나라에 더 작은 도시 예를 들어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는 도시화를 더 잘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오늘날 북미, 북서부 유럽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도시는 거의 대다수의 농촌 인구를 도시로 끌어들이고 있다. 기계를 이용하여 땅을 경작함으로써 소수의 노동력으로 헥타르당 더 큰 수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잉된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이주하고 농촌에 남아 있던 노동력은 일종의 농촌에 있는 도시인이 된다. 즉, 산업분야에서 그들의 직업은 우연히도 식량을 생산하는 일이지만 습관과 외양은 도시의 거주민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말 그대로 그리고 문화적 의미에서 도시화 과정이 오늘날까지 아마 가장 앞서 나간 곳일 것이다.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농촌인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나라에서 농촌인구는 도시화가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예로 일본을 들 수 있다. 비록 남미에서도 도시가 세계의 어느 곳 못지 않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도시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남미국가에서도 농촌인구는 계속 전체 인구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남미에서는 북미, 북서부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일본과는 달리 농촌 거주민에게 도시의 생활방식이 아직 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높은 비율의 도시인구가 뿌리 뽑힌 소작농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도시와 농촌 사이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있다.

물론 스페인계 남미도시들은 스페인의 정복 중에 그리고 정복 이후에도 이 도시들은 설립된 이래로 언제나 이국적인 모습을 띄어왔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후계자들이 이집트, 서남아시아에 옮긴 그리스 도시처럼 스페인계 남미 도시들은 이 토속 케이크에 들어간 외국산 자두가 되었다. 이질적인 도시의 이식은 이 도시를 관리하는 나라에 심각한 내부 갈등을 야기한다. 문화적 대조를 가중시킴으로써 도시와 시골사이의 생태학적 대조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약 350년 동안 지속된 스페인 점령 이후 초기 몇 십 년부터 19세기말의 몇 십 년까지 계속해서 스페인계 남미는 현대 세계에서 이 헬레니즘 현상이 다시 등장하는 독특한 예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이국적인 현대도시는 도처에 편재해 있다. 멕시코시티와 와이아킬, 리마 같은 도시는 앙카라, 테헤란, 카불, 카라치, 봄베이, 자카르타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새로 유행이 된 도시들은 그 각각의 도시가 되기 이전의 원래의 시골형태보다는 이 도시들끼리 서로 더 유사하다.

일률적인 판잣집들이 뉴저지의 프린스턴에서 매일 생겨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전체도시를 옮길 수 있는 마법의 카펫이라도 소유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 가지고 있다면(오늘날에는 놀랄 만한 기계도구가 없다.) 사회학적인 실험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깊은 밤에 이 표준화된 리마나 테헤란 같은 이국적 도시들 중 둘을 선택하여 그들의 위치를 바꾸어 보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이란의 소작농이 리마에 있는 시장에 갈 때 그리고 페루의 소작농이 테헤란에 갈 때 이 소작농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어떠한 변화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오늘날 세계의 도시들은 각각의 농촌이었을 때는 너무나 이국적이었는데 이제는 대량생산된 자동차의 표준화된 부품의 견본들처럼 유사하다. 한 부품의 견본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엔진은 전부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시골뜨기 운전사는 그가 전에 대단하다고 여겼던 기계가 더 이상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남미와 세계 곳곳에서 뿌리 뽑힌 농민들은 지금은 표준화된 이국적인 도시들 속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변동이 없는 고정된 농촌의 생활양식에서 유동적인 도시 생활방식으로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이 혁명적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은 도시로 이주해 오는 아직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주자들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의 거센 소용돌이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 경제적 병폐의 원인은 확실하지는 않다. 지금까지는 저개발국들은 그들의 쇠약해지는 경제적 자원을 영구히 증가하는 속도와 규모로 뒤늦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존속하는 구제책을 고안하고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런 사이에 이주 농민이 받는 사회적, 심리적 영향은 비참하고도 걱정스러운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본질적으로 사회불안의 근원이다. 인플레이션은 고정수입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계층은 인플레이션의 희생자가 된다. 인플레이션은 희생자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사실 그렇지만-느끼게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사회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반란과 혁명을

남게 한다. 그러나 오늘날 남미에서처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은 계층은 큰 기대를 실현시키려는 희망으로 비례적으로 큰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새 이주자들이다. 이들이 있는 곳에서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은 아주 크게 작용한다. 이것이 지금의 남미에서 경험이 없는 산업근로자 계층과 새로운 산업, 상업 그리고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경험이 거의 없는 하위중간계층의 상황이다. 중간계층의 이들 새로운 층원자들은 임금을 받는 피고용인들이다. 인플레이션이 산업근로자들을 희생시키듯이 인플레이션 상황의 전문가들인 상위계층과 신흥부자들은 산업생산과 상업교역의 수단을 소유하고 있기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희생시킨다.

남미에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가 어렵다면 남미의 제1차 산업의 생산물의 세계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문제는 처리하기 훨씬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한 남미의 국가들은 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1차 산업 생산품의 해외판매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미의 어떤 국가도 국내에서 경제적, 질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으므로 우수한 자본설비를 해외에서 계속 구입하지 않고서는 경제를 개발하거나 심지어 유지조차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모든 남미 문제들 중에서 미국이 가능하면 그들과 협력하여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문제이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폭발성의 성질을 가진 사회적, 정치적 문제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을 출범시킨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성가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진하여 나선 것은 의미 있고 고무적이다.

권위 있는 미국의 관측자의 연설에서 케네디 계획의 요점을 요약함으로써 이 강연을 마치겠다.

‘남미는 변동의 와중에 있다. 이것은 모든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폭발적인 움직임들 중 하나이다. 산업혁명, 도시화, 중산층의 성장, 세계의 어느 곳에

서도 볼 수 없는 인구 폭발, 민주주의의 모든 혁명적 노선을 도입하는 정치적 동요, 무지, 빈곤 그리고 질병을 사건의 자연적 과정처럼 받아들인 민중이 지금 양질의 기회, 교육, 건강, 그리고 더 높은 생활수준을 요구하고 그리고 얻기 시작하고 있는 사회혁명. 이 모든 것들과 다른 역동적인 힘들은 변동의 방식과 서구사회에 끼친 영향 면에서 유럽의 르네상스와 비견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⁹⁾



9) 허버트 L. 매튜 Herbert L. Matthews, 『미국과 남미에서 in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 (New York, The American Assembly of Columbia University, 1959), 182쪽

3. 미국의 당면과제

한번은 아주 큰 개가 실수로 남의 집을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 큰 개는 순했다. 이 개에게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그가 본 모든 인간은 친구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방에서 이 큰 개의 가슴은 복받쳤다. 이 개의 정신, 신체의 장치는 완벽했기에 이 개의 기분은 즉시 적합한 신체적 행동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때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 개가 적합하다고 생각한 감정에 따른 행동이 초대받지 않은 곳에서는 맞지가 않았다. 처음 휘두른 꼬리에 의자 다리는 부러지고 두 번째에는 둔한 웨이터를 넘어지게 해서 들고 있던 그릇을 깨뜨리고 부서진 크래커와 쿠키 부스러기는 바닥에 널려 있게 되었다. 세 번째에는 쿠션을 전기 히터의 백열선으로 내던져 그 곳에 달라붙은 쿠션에 불이 붙었다. 방안 분위기가 온통 야단법석으로 난리가 나자 이 혼란을 일으킨 순한 개는 욕을 먹고 채이고 그리고 성난 인간 동료들에게 두들겨 맞았다. 이 불쌍한 개는 그가 일으킨 혼란을 눈치 채지 못했고 대신 그가 취급당한 적대감만을 기억하게 되었다. 나는 이 개의 눈에 나타난 혼란에 빠진 불쌍한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이 개가 비참하게 빠져나갈 때 그의 눈은 “이 인간들은 불가사의하다. 나는 그들에게 애정을 보였는데 그들은 마치 내가 공격이나 한 것처럼 취급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 개는 그의 공격이 그만한 크기의 개가 하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만일 이 개가 작은 개였다면 처벌받지 않고 그의 애정을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개가 커다란 덴마크 종이며 좋은 관계를 이루는 데 이런 타고난 문제점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어려웠다. 이 문제는 사람이 신장에 한 치 더하는 것이나 한치를 빼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는 1925년에 미국을 처음 방문하였다. 메사츄세츠의 윌리엄스타운에 있는 윌리엄스 대학의 여름 학교에서 국제관계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강좌 중

하나가 미국과 남미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에게 강의를 했던 전문가 중 한 사람이 그 때 유나이티드 프룻사의 리 커터 회장이었다. 그의 강의 주제는 “공손함”이었다. 그는 그의 회사의 연보에서 바로 뽑아낸 내가 확신하건대 모두 사실인 일화들을 이용하여 그의 요점을 설명하였다. 커터 회장은 한 회사의 지점을 중미 국가의 수도에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건물이 국회의사당 건물을 압도할 것이고 이 것은 예의 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한 회사가 이 나라의 유일한 철도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요청해와 특별기차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면 이 지점의 이사가 자신이 탄 특별열차를 가도록 하는 동안 대통령의 특별열차를 기다리게 하는 것도 역시 예의바르지가 않다. 이것도 역시 적합한 행동이 아니라고 커터회장은 말했다.

커터회장의 첫 번째 공손함의 규칙들의 지혜를 나는 몇 년이 지나서 커터회장의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와 같은 수준의 다른 미국 회사가 이 규칙을 무시한 사례를 관찰함으로써 인식할 수 있었다. 중미나 남미 태평양 해안을 따라서 중요한 도시들을 방문해보면 그레이스 라인사의 남미 지점이 그 도시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커터회장의 말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물론 예의 바르지 않음을 그레이스 라인사가 깨닫게 하는 것이 도시들이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보다 더 쉽다. 이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각 남미 국가에 있어 외국기업이든 국가기업이든 가장 중요한 단일 사업 회사일 경우에 있어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듯이 그레이스 라인사는 중앙에 그리고 접근 가능한 위치에 지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매우 넓은 면적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받아들였을 때 회사는 이미 이미지의 손실을 입었다. 그 지역의 그레이스 라인사 건물은 저 아래 있는 수도의 보잘 것 없는 공공건물을 압도하면서 하늘로 솟아올랐다. 이 압도적인 모습의 기업은 이 회사의 수

지를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모르나 홍보에 있어서는 역효과를 낸다.

2차 대전 이후 전세계는 철강 부족현상을 빚었는데 이때 미국의 남는 철강을 다른 나라에 할당하는 일을 했던 한 미국인 관리를 만난 적이 있다. 쿼터 배정은 언제나 불공정하다고 비판받기 쉬운 일이다. 이 특별한 할당을 마치고 발표를 한 후 이 관리는 느긋하게 앉아 있었는데 장거리전화가 걸려왔다.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는 캐나다에서 온 것이었는데 왜 미국의 철강 쿼터 목록에서 캐나다가 제외되었는지를 따졌다. 이 미국 관리는 캐나대를 단순히 잊고 배정을 했는데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캐나다는 미국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기에 그는 의도적으로 캐나다를 제외시켰다고 믿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물론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는 이 여파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이 캐나다를 그저 간과해 버렸다고 캐나다가 알게 된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거인의 아주 큰 신장은 언제나 이 거인으로 하여금 정상적 신장의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남미의 정치가는 짧은 재치 있는 문장으로 이것을 표현하였다. ‘미국이 재채기할 때, 남미 국가는 감기에 걸린다.’¹⁰⁾

만일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미국과 남미 국가들 사이의 모든 문제였다면 서반구의 다른 지역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현재의 상황처럼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차이점은 미국의 적절한 입장과 남미지역의 유머감각의 조화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면 두 지역 사이의 문제점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기의 차이가 전체 문제가 아니다. 차이에서 야기된 병폐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오해와 불협화음의 원인이 되므로 위험하다. 이런 더 큰 문제점이 드러나게 될 때 크기의 차이점은 본질적으로 잘 해야 조크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극제 이상의 역할로 화약고

10) 『프라이엘; 페루의 지도자, 미국과 남미에서 인용하였음 Quoted in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 (New York, The American Assembly of Columbia University, 1959), 182쪽

에 불꽃을 일으킬 지도 모르는 마찰을 낳을 것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사회정의를 향한 움직임을 생각하느냐이다. 남미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민중의 몰아치는 힘이 이 지역에서 주요세력이 되게 하라는 주장으로’¹¹⁾ 사회정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남미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주지하였다. 현재 당면문제들 중 사회정의를 이루려는 것은 적어도 인류의 3/4에게는 가장 뜨거운 관심사이다. 미국은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는가? 사회정의를 지지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반대하는가? 미국의 대답이 무엇이든 지간에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미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이 사회정의를 반대편에 선다면 실질적으로 미국은 인류의 적임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다.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는 두 번 독일이 세계를 거역하고 당연하고 피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았다. 미국이 부와 기득권의 명분을 쌓는 데만 열성적이라면 역사가 미국을 앞으로 나아가는 행진의 길 밖으로 내몰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유사회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없다면 소수인 부자도 구할 수 없다.’라고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고 투로 진실을 밝혔다. 이 경우에 만일 같은 역사의 빗자루로 소련도 쓸어버린다면 미국에게 약간의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럼으로 오늘날 미국의 사회정의를 대한 관점은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이 문제에 있어 남미는 미국의 관점을 엄밀하게 짚 수 있는 시험대이다.

남미에서 미국의 의도는 의심받고 있는 것이 확실하며 심지어 미국이 진보적인 입장에 있다는 증거가 될 조치를 취하고 있을 때도 미국의 동기는 의심을 받게 된다. 이런 추론은 타당한가? 미국의 원조를 받는 선견지명이 있는 남미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매번 질문을 한다. 미국이 사회정의를 명분에 진

11) 허버트 L. 매튜 H. L. Matthews, 『미국과 남미에서 in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 169쪽

심으로 관심이 있는가? 미국의 기득권과 인류의 아주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유하고 만족스러운 소수를 방어하기 위한 또 다른 뻔히 들여다보이는 책략인가? 아마도 미국은 “다가올 분노”보다는 이것을 방지할 차선책으로 마지못해 우리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할당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진정한 동기는 미국이 내세우는 자발적인 관대함과 이상주의가 아니라 신화에서 전통적인 악마의 역할을 떠맡은 악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인가? ‘이 질문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원조는 미국 자신의 순수한 선물이 아니다. 이 원조 꾸러미는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내용물은 미국의 납세자가 지불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선물의 진짜 기증자는 카스트로나 흐루시초프 또는 결국은 아마도 칼 마르크스일 것이다. 만일 이 악마가 때맞추어 미국의 배후에서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꾸러미는 결코 포장되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전달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미국에 대한 남미의 비판가들은 말한다. 이 비판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단지 남미에서만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도 같은 비판을 하였다.

예를 들어 1960년 7월 11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에서 남미에 원조를 새로이 예시하는 성명서를 시기 적절하게 내 놓았다. 대통령은 이 성명서에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받은 첫 번째 질문은 제안된 협력방안에는 카스트로 정권하의 쿠바도 포함하는 가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부정적임을 내비쳤다. 다른 질문은 제안된 새 계획안에 남미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유럽에 대한 마샬 계획의 특성과 중요성에서 비견할 만한 것이었는지 여부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대답은 남미국가의 원조에 미국의 추가비용이 아마 필수적일지 모르나 마샬 계획과는 “아주 다르다.”고 답변하였다. 중요한 질문에 대한 이 두 가지 즉석 답변은 무심결에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대답은 카스트로의 쿠바를 제외한 모든 남미국가들에게 새로이 제안된 미국의 선심의 동기가 남미국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국가들이 카스트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선심의 정도도 정치적

목적은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뉴욕타임스는 다음날 아침사설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적절한 제스처에 대해 조심스럽게 비판하였다. 사실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미국의 트럼펫은 ‘더 확실한 소리’를 내야한다고 요청하였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비판의 소리는 조금 더 거세었다. 8월 8일에 맨스필드 상원의원은 대통령의 형식적인 제스처를 특히 미국이 그렇지 않아도 남미에서 호의를 얻을 수 있는 시점에서 호의를 사려고 한 무감각한 시도라고 비판하였다. 8월 11일 폴브라이트 상원의원은 상원의 외무위원회에서 이 새 계획에 대한 히터 국무장관의 칭찬을 ‘약간은 임중시의 고해처럼’ 들린다고 특징지었다. 9월 4일 험프리 상원의원은 ‘대통령은 쿠바는 이미 공산주의 길로 들어선 후라야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 같다.’이라고 보았다. 정당정치 특성을 완전히 고려한 후에도 이 부정적인 비판이 적중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이 반대 비판자들이 애국적인 미국시민이었다. 이것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스처가 미국시민들에게 준 인상이 이렇다면 남미는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 미국의 이 계획된 선물에서 미리 쿠바에게 뭇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카스트로를 압수한 사탕수수 또는 다른 요소들을 쿠바인들에게 제공하는 진정한 기부자로 비치게 했다. 카스트로의 쿠바는 미국을 비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960년 8월 13일 저팬타임스는 도쿄에 있는 쿠바대사관으로부터의 편지를 실었는데 이 편지는 ‘이 전략은 너무나 서툴러서 쿠바에게 새 친구를 만들어 주고 강력한 이웃인 미국은 국제적으로 위신의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잘못이라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객적은 소리를 하는 국민에게 대담하고 분명한 리드를 하는 대신 지금의 미국대중의 의견과 감정을 너무나 충실하게 반영하는 데 있었다. 하버드 대학의 남미 전문가 존 플랭크에 의하면 1961년 6월 11일 뉴욕타임스에서 일년 후에 미국대중의 마음의 상태가 다음과 같이 특징 지을 수 있다면 미국대중의 의견은 여전히 애매하였

다. 미국정부와 국민은 남미에서 현재 위기와 미국과 남미의 관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직면해야 할 어려움들을 토의할 때 플랭크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이런 어려움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이든 내재적이든 간에 혁명에 직면하였을 때 미국의 뿌리깊은 불안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우리는 안정성, 지속성, 제도화된 변화를 높이 평가한다. 반면에 우리는 갑작스런 변동, 폭력, 급진적인 시작을 혐오한다. 국민으로서 우리는 오늘날 널리 퍼진 혁명의 폭풍에 적응하는데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또는 곧 준비도 할 수 없다면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경쟁에서 미국은 거의 실패할 것이 확실하다.’

급하게 전개되는 위기에 직면하여 미국 대중의 반응은 불안하게도 더디다. 플랭크에 의해 묘사된 미국 대중의 심리 상태는 일년 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교서에 반영된 상태와 별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1961년 미국 국민들은 20세기 서반구의 정치무대에서 마찌니의 역할을 할 것인지 메테르니히의 역할을 원하는지를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그 동안에 미국의 행정부에서 하나의 커다란 바람직한 변화가 있었다. 플랭크의 기사가 발행되는 동안에 케네디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고 미국의 노선을 확정해 조치를 취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3월 13일 남미의 외교관, 미국의 관리 그리고 미국의 의회 의원들에게 백악관 연설을 했다. 3월 14일에는 워싱턴 국회에 그의 교서를 전달하였다. 1962년 2월 나는 아직도 미국혁명에 대한 현재의 미국 국민들의 생각을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모두는 안다. 대통령은 아주 대담하고 솔직하게 밝혔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잘못 이해했다고 변명의 여지를 남겨 놓지 않았다.

미국 국민은 어디에서 있는가? 남미의 관측자들은 당연히 남미에서 미국의 최근 기록으로 판단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의 미덕 표명에 의심을 나

타내는 남미의 회의론자들이 주장한 사례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여기 있다. 1945년 과테말라에서의 반혁명이 유나이티드 프루츠의 부추김을 받아 미국 정부가 조작했다는 주장을 고려하지 않겠다. 나는 이것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불행히도 1961년 쿠바에서 반혁명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데에는 미국정부가 연루된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행정부 자체 내에서 고백된 내용이다. 공식적으로 평화상태에 있는 외국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 자신의 군대를 파견하기보다는 일단의 망명자들을 무장시켜 해방시킴으로써 뜻을 이루려는 것은 1956년 수에즈전쟁에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격에서처럼 추할 뿐이다. 수에즈 사건이 있던 시기에 나는 일본에 있었다. 쿠바사건 때는 미국에 있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 두 번째 쿠바사건인 경우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쿠바의 큰 실패를 도덕적 문제로서가 아니라 미국정부의 효율성에 있어서 실패로 본다는 것을 알고는 유감이었다. 또한 쿠바에서라기보다 19개 또는 20개 남미국가들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사건의 영향에 미국 국민들이 무관심한 것을 보니 실망하였다.

오늘날 세계의 여론은 현실이다. 이 여론은 세계의 문제들을 파악하는데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낸다. 다행히 세계의 의견은 강력한 나라들이 더 약한 나라에게 힘을 사용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혐오하고 비난하고 있다. 공격받은 나라의 정권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어떤 상황에서건 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관망하는 국제 사회의 무법과 폭력을 훨씬 더 강하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19세기의 마지막 몇 년까지만 해도 영국이 (남아프리카 태생의 백인인) 아프리카 네덜란드계 나라와 싸우고 정복하고 합병할 때 나의 조국 영국은 국제사회의 폭력과 무법을 경시한 점에서 심판을 받았다. 1956년 일본에서 이집트에 대한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비난은 전 세계에서 즉시 일어났다. 이것을 유추해보면 미국의 언론은 장기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해의 기준에서도 가장 중요한

면이 될 쿠바사건에 대한 이런 관점을 거의 무시하고 미국의 목적에 맞게 보도했으나 1961년 세계가 쿠바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쿠바나 과테말라에서의 미국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다. 또한 미국의 신임장을 받은 대사로부터 혹은 관망하는 미국의 의원들로부터 남미의 독재자들과의 힘있는 포옹도 아니다. 유럽인이기에 나는 나의 시험이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안다. 미국에서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에 대한 미 대중의 감정과 나치 독일에 대한 반응 사이의 차이점을 감지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소련과 나머지 세계에서 상당한 비율의 무고한 인명을 학살시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맹목적 애국주의자의 아이들도 포함해서 아마도 미국인구의 반을 희생시켜서라도 소련과의 핵전쟁을 기꺼이 보기를 원할 정도로 소련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2년 미국에서의 이런 추세는 중립적 범안의 가결에서 반영된 1939년과는 아주 상반된 것이다. 1939년 미 국민은 히틀러가 일으키려 하는 인종에 대한 전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어떻게 놀라울 정도로 서로 다른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가? 히틀러는 적어도 러시아의 가장 사악한 공산주의 지도자들만큼 사악했다. 나치 독일은 적어도 소련만큼 인종의 자유에 대하여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다. 내가 판단하건데 진위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자칭하는 ‘자유세계’는 1940년이 1962년보다 전체주의 정치로 떨어질 위험이 훨씬 더하였다. 미국의 여론은 1940년에 이런 위협을 알아차린 루즈벨트대통령을 원숙한 지도자요 교육자로 여겼다. 하지만 미국으로 하여금 반 전체주의의 편에 써서 싸우게 한 것은 히틀러와 군국주의 일본의 어리석음이었다. 나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위대한 정치가로 생각하지만 적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업적을 성취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대중의 무관심과 타성의 힘은 1940년에 여전히 상당하여 히틀러와 일본인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전투의 결정을 하게 하지 않았다면 루즈

벨트 대통령은 이 움직임을 깨뜨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케네디 대통령은 발굽 앞에 위기를 보고도 꺾이지 않고 진격을 하려는 열망에 조바심이 난 군마를 양손으로 억제하고 있다. 확실하게 서로 상반되는 이 두 상황에서 전체적인 추세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까? 나는 이 이유를 알 것 같은데 이것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여부이다. 미 국민들이 히틀러주의의 공격적인 행진에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이 움직임이 그들의 경제를 위협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공산주의가 그들의 경제를 위협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내가 본 바로는 이것이 미국인들이 공산주의를 볼 때 '적자'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진단이 잘못된 것이기를 바란다. 나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되면 이것은 기득권과 사회정의 사이에 현재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 미국은 어디에서 있는가?란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이 질문의 대답은 실망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인들의 중대한 목적은 그들의 기득권의 보호이며 사실은 사회정의가 상징하는 것과 반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회정의가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회정의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언급한 것처럼 미국인들은 아직 결정적으로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결정은 아직도 위기에 처해서 주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취한 입장은 상당히 중요하고 고무적인 것이다. 사회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에서 남미에 도움이 될 때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가 유일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도 중요하다. 왜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도 중요하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미국이 얼마나 진지한가에 대한 테스트이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남미의 진보주의의 테스트가 될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했다. 미국은 남미의 국가를 도와야 한다. 도움을 주는 그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좋은 이유는 사회정의의 명분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 명분은 촉

진되어야 하는가? 아마도 정의와 사회분야에서 정의가 성취되는 한 사회정의가 이루어지면 따라올 복지는 인간의 삶의 두 가지의 절대적인 가치일 것이다. 그래서 사회정의의 명분은 좋은 명분인 것이 확실하다. 게다가 우리가 미국의 시민이라면 우리는 사회정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 특별한 이유는 국가적이며 역사적인 것이다. 사회정의의 이상은 미국혁명의 이상이다.

미국과 남미의 국가들 사이에 ‘진보를 위한 동맹’을 출범시키면서 케네디 대통령은 그의 뜻대 머리에 미국혁명의 깃발을 고정시켰다. 1961년 3월 13일 백악관 연설에서 대통령은 그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를 탄생시킨 혁명은 토마스 페인의 말에서 인용한다면 “결코 사라질 않을 불꽃을” 점화시켰다. 거대한 혼란의 대륙에서 미국의 이러한 이상덕택에 우리는 국가의 독립과 개인의 자유를 위한 인간의 투쟁을 계속해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혁명이 다른 곳으로 퍼지는 것을 환영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투쟁인 1776년 필라델피아와 1811년 카라카스에서 시작된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 서반구의 임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세계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의 투쟁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미국혁명의 정신을 일깨워야겠다.’

여기서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혁명의 참된 정신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입증하는 원문은 제퍼슨의 작품의 페이지마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에머슨은 유명한 여섯 음절 ‘혁명이 미국에서 시작하자 모두가 알게 되었다’로 제퍼슨의 주제를 요약했다. 아마도 미국혁명의 계속되는 추진력에 가장 인상적인 목격자는 메테르니히이다. 그는 몬로 독트린의 공포에 맞추어 알렉산더 러시아 황제에게 미국혁명의 원리들을 비난할 때 미국혁명의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 곳곳에서 미국민들은 이전의 미국혁명보다 동기가 정당하지 않지만 전적으로 이것만큼이나 대담하며 위험한 새 반란행위로 유럽을 놀라게 했다. 이들이 나타나는 곳에는 어디서나 혁명을 육성하고 혁명의 실패를 유감으로 생각하고 혁명이 번영할 것 같은 곳에 지지를 확대할 때 이들은 난동의 주창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빌려주고 모든 공모자의 용기를 북돋운다. 이렇게 쏟아지는 유해한 본보기가 미주지역으로 확대된다면 완전한 해체로부터 유럽을 구한 종교와 정치적 제도, 우리 정부의 도덕적 힘 그리고 보수적인 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메테르니히는 한탄하였다.’¹²⁾

토인비씨, 나는 당신이 노쇠하고 건망증이 심해져 이름과 날자들을 헷갈리고 있다고 염려된다. 당신이 방금 인용한 말은 쿠바에 대한 흐루시초프 서기장의 승리를 존 포스터 돌즈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앞에서 통곡하며 한 말이다. 글썬요, 의장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나는 내가 언급한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현재의 전제군주에 앞선 모든 러시아군주들에게 몬로독트린을 전복시키는 도구로 비난하면서 19세기의 오스트리아의 정치가가 한 말입니다.

혁명은 혈기 왕성한 말이다. 누군가 이 말을 타든지 아니면 이 말에 밟혀 죽든지 선택해야 한다. 합스버그 왕가와 전제군주는 지난 반 세기 이내에 밟혀 죽었다. 그러나 어떻게 결과적으로 혁명적 사고를 가진 러시아의 곡예사가 말안장으로 뛰어서 앓을 수 있었을까? 그는 말안장이 비어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의 기수가 그 말을 차지하게 되어 원래 타고 있던 미국의 기수는 내려와야 했다. 미국은 미국의 혁명적인 생존권을 다시 차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제자리에 정체되어 있을 것인가? 미국의 운명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있다. 투기장에서 말에서 떨어져 우물쭈물 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시대에 세계 투기장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어 전에 없이 좁아지

12) 메테르니히 Metternich, 『미국과 남미에서 텍스터 퍼킨슨에 의해 인용됨 Quoted by Dexter Perkins in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61), 46-47쪽

는 범위 이내에서 말이 큰 소리를 내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문제에 대한 케네디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혁명에 대한 존 포스터 들즈의 입장을 버리고 제퍼슨의 입장을 다시 취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에서 권위 있는 비평가들이 이 점을 잘 고려하였다. 이미 인용하였던 1961년 6월 11일 뉴욕타임스의 기사에서 존 플랭크는 ‘미국의 힘의 과시인 몬로 독트린을 불러내는 것으로 지금 전례 없이 남미에 쏟아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의 홍수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미생물처럼 이념은 인간이 만든 제한선을 무시한다.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서 몬로 독트린은 이 것이 공포되었을 때 혁명을 저지하기 위한 방패로서 신성동맹만큼 거의 비효율적이다. 현재의 ‘진보를 위한 동맹’이 또 다른 신성동맹으로 퇴보하게 된다면 틀림 없이 신성동맹의 굴욕적인 운명을 겪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서반구에서 파다하게 퍼진 혁명적인 추세와 같이 나아가야 한다’ 라고 존 플랭크는 미국의 동포들에게 말한다. 플랭크는 그의 동포들에게 서반구에서 지금 진행중인 변화의 힘을 견제하여야 할 악마로 보기보다는 이용해야 할 기회로 생각하라고 충고한다. 그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보다 남미의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훨씬 더 지지하고 심지어 고무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까닭 없이 불안을 일으키는 단어 ‘사회주의’에 주눅들지 말아야 한다. 같은 생각의 맥락은 남미에 대해 연구하는 미국인 허버트 매튜¹³⁾에 의해서도 주장되고 있다. 이 미국의 관측자는 남미에서 ‘자유기업’은 미국의 몇몇 사업의 이해관계를 포함하는 국내나 국외의 사업가들이 지지를 유익하지 못한 방식에 의해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전통적인 경제를 남미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그는 닉슨이 1958년 남미에 관한 격렬한 논쟁에서 남미내의 사회정의를 향한 현재의 혁명적 움직임의 힘을 미국도 남미의 소수 특권층도 인

13) 『미국과 남미에서 in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 (New York, The American Assembly of Columbia University, 1959년 8월 6일), 143-193쪽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높이 평가한다. 매튜는 ‘군사적 독재자나 소수의 세력가들이 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안정성은 폭발을 일으키는 술항아리를 억누르는 뚜껑’이라고 경고를 한다.

‘남미의 사람들은 미국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기대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고 있으나 압박하는 현실적인 사회,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문제들의 위험은 멀리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자신을 방어하고 생활방식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한다는 것을 알기에 원조를 받지 않는다. 가난과 불행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 수백만 명은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게 기대고 있지 않다.’라고 매튜는 미국인들에게 전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주의가 그들을 위해 행한 것에 대해 남미의 대중이 지불한 대가는 ‘어떻게 그와 그의 가족이 현재의 그들의 상태보다 더 어렵게 살아 갈 수가 있는지를 묻는 콜롬비아, 브라질 혹은 과테말라 농부’에게는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스티븐슨이 언급했듯이 특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은 변화의 바람에 휩쓸렸다. 이들은 약속에 지쳤다. 이들은 손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 약속의 실천과 결과를 원한다.

이 통찰력 있는 전문가의 조언에 비추어 보면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3월 13일 백악관 연설에서 그의 계획인 ‘진보를 위한 동맹’을 ‘경제적 진보를 막는 사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대규모의 미국과 남미간의 노력’으로서 특징지었다. 다음날 케네디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의회에 보내는 교서에서 ‘오늘 내가 요청하는 자금 지원을 사회진보를 위해 기여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함으로써 다시 언급하였다. 같은 교서에서 대통령은 ‘사회진보 없는 경제성장은 대다수 국민을 빈곤 상태에 빠뜨린다. 반면에 소수의 특권층은 풍부함의 혜택을 점점 많이 받게 된다.’라고 중요한 지적을 하였다.

그래서 케네디 계획 하에서 남미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분명히 규정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미국에게 이것은 미묘한 정치적 문제를 제기한다. 남미의 국가들을 위한 미국의 원조 계획에 따른 정책을 실현한다면 미국이 이 국가들의 국내 문제에 개입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이것은 간섭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케네디 대통령의 계획은 개입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원조가 개입이 되는 이유는 미국의 조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남미의 상황에 있기에 미국은 어쩔 수가 없다. 각 남미국가에서 모든 정당들이 사회정의를 바라는데 있어 하나가 된다면 어떤 정치적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미에서 다수는 사회정의를 바라고 사회정의를 요구하지만 소수는 완강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현 세대의 일생 동안 보수주의의 지배력에 대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많은 남미의 국가들의 국내 정치상황에서도 많은 다른 국가들처럼 다양한 계층, 정당들 그리고 사회적 추세 등이 혼란으로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원조는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원조는 한쪽에 혜택을 주게 되고 국내 정치갈등에서 반대되는 쪽에는 불이익을 주게 된다. 방해하는 애완용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은 이런 간섭의 효과를 낳는다. 큰 네덜란드종인 데인이 꼬리를 휘두름은 비례적으로 큰 타격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남미 국가의 국내문제 불개입에 대한 약속에 100% 지는 것을 확실히 해두는 방법은 개입을 중단하여 남미 국가들이 혼자 힘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도록 놔두는 것이다. 이런 조치가 미국이 불합리한 점으로 끌고 가려는 것을 저지하게 되어 미국과 남미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바라는 것과는 달리 이런 해결책도 미국과 미국의 남미 협회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꼭 같은 정도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스티브슨이 분명하게 말한 것처럼¹⁴⁾ ‘이것은 공산주의에 다른 정치 사상의

대변인들이 말만 할 수 있는 것 같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조처가 없음을 지적하기만 한다면 불행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끌어들이는 마력인 그 활약무대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것이다.’

서반구의 이해관계에 공통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은 가만히 있기만 하는 생각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 바른 해결책은 반구의 협력에 있어서 미국과 남미는 남미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미국 원조가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각 남미의 국가에 미국의 개입이 가져오는 영향은 무엇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실상을 다루는 것이다. 이것은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부터 제의한 해결책이다. 그는 백악관 연설에서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내부로부터 온다.’고 선언하였다. ‘남미 국가들의 확고한 노력만이 이 노력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각 남미국가는 그들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이 계획들은 외부자원의 할당에 기초가 될 것이다.’ 그는 다음날 워싱턴 의회 교실에서 이점을 확대시켰다.

‘우선책은 단순히 필요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진보를 유지할 것을 약속한 제도상의 개선을 위한 각 정부의 확고한 준비성에 의존할 것이다. 원조를 받은 나라가 특별한 계획이 사회진보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들을 취할 것이라는 확신을 받아야 비로소 지원금이 할당될 것이다.’

이런 조건들은 진보를 위한 새로운 기금을 이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책임성을 부여한다. 이 기금은 사회정의의 증진을 위해서 책정되었다. 그러나 어떤 남미의 국가도 기금을 발행함으로써 사회정의 증진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참여와 비참여 사이에 선택은 각 남미 국가의 정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어떤 남미국가 정부의 목적이 사회정의를 촉진시키는 것

14) 뉴욕타임스에서, 1961년 8월 6일

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정부가 있다는 불운을 생각해 보라. 어느 이웃 국가들 못지 않게 사회정의를 바라는 이 나라의 대다수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일 것이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좌절은 모두가 부당하게 받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모든 나라는 받을 만한 정부를 갖게 된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진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국가는 독재 정부라도 그 정부가 정한 규칙을 받아들이고 있는 정부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쁜든, 약하든 강하든 모든 정부는 항상 받아들여진다. 남미에서 성난 국민에 의해 권력에서 추방될 위험에 놓여있는, 사회정의를 반대하는 정부의 체면을 계속 세우려고 하는 나쁜 정부에게도 해당된다. 물론 ‘진보를 위한 동맹’을 이용함으로써 정권의 가치 있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정의를 상징하는 정권에 길은 열려 있다.

케네디 계획의 근본적인 전제는 남미의 대다수 국민이 사회정의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 다수는 그들의 의지를 널리 알릴 것이고 사회정의를 향한 움직임은 따라서 ‘미래의 물결’이 된다. 그러나 남미에서 사회정의를 부의 분배에서 급진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정치적 변화 없이는 남미에서 추진될 수 없다. 이 변화는 소수의 특권층과 권력층의 기득권을 대가로 한 것이기에 투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몇몇 남미 국가에서 부에 대한 현재의 조세액은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미국의 기준으로 보아도 불공정하리만큼 가볍다. 미국의 납세자는 더 부유한 남미의 납세자들이 그들의 국내 수입에서 훨씬 더 가볍게 면제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미의 개선을 위해 정부에 위해 자금을 기부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자금을 관리할 당국이,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토지개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의 농업원조를 위해 자금을 추천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자금원조의 효과는 이미 소수의 아주 부유한 대 농장주의 부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1961년 3월 14일 의회의 교서에 주지하였

듯이 이것은 사회정의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것이다. 공공관리기관이 명목상의 지위소유자와 정치적인 관리들로 가득찬다면 어떻게 한 나라의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정직하게 어떤 기부금이라도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 나라 공무원의 직업적 기준이 이일을 하기에 너무나 낮다면 원조 보조금은 공지에 물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조의 필수조건은 담당 행정관청의 개혁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진보를 위한 동맹’은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인 정치적 지도자를 원한다. 남미를 잘 알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 곳을 여행했던 스티븐슨은 1961년 8월 6일의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희망적인 관점을 피력하였다. ‘남미의 지도자들은 오늘날 모든 국민의 혜택을 위해서 명백하게 나타나는 본질적인 변화에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누군가는 다른 필수적인 자격요건들을 지도력에 보탬지도 모른다. 지도자들은 정직해야 하고 공공심이 있어야 하며 비전을 갖고 있으며 열정적이어야 한다. 이런 필수적인 미덕 각각은 일반상식과 건전한 판단력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사회정의를 향한 그들의 열정으로 ‘진보를 위한 동맹’을 운영할 정치가들은 경제적 진보를 계속 유지할 지속적인 필요에 통찰력을 잃지 않도록 주지하여야 한다. 만일 경제가 악화되면 사회정의를 향한 움직임은 이것에 필수적인 경제적 자양분의 결핍으로 쇠약해지기 때문이다. 남미에서 정치력에 중대한 문제는 사회정의나 경제발전의 움직임이 어긋나지 않게 함으로써 사회정의와 경제적 발전을 향한 움직임을 동시에 촉진시키려는 실질적인 요소이다. 이 강연의 첫 단계에서 나는 이들 두 요소를 위한 움직임의 어느 한 가지가 상호 보완적 움직임을 손상시킨 최근의 몇 가지 경우를 인용함으로써 이점에 주지하라고 하였다. 인용된 사례들은 어느 방향에서든지 이 두 요소의 균형의 손실은 파멸을 불러오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남미의 경험은 새로운 기금을 관리하는데 책임을 나누어 갖게 될 모든 당국자들이 잘 새겨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시작은 미국에서 했다. 그 후속은 남미에서 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구’이다. ‘자구’는 케네디 계획이 제공하는 자발적 결정에 의해 모든 참여하는 남미의 국가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자발적 결정권의 혜택이 기금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을 위해 만든 하나의 도덕적인 의무감이기도 하다.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을까? 우루과이의 휴양지 폰타 델에스테에서 1961년 8월 5일에서 17일 사이에 열린 회의에서 어떤 전망을 그 진행과정에서 할 수 있는가? 미국 정부의 관점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전하는 케네디 대통령의 교서에서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계획을 채택했고 발전시킨 미국의 대표단장인 더글러스 딜런의 개막연설에서 다시 한번 진처럼 분명하게 언급되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인간의 자유와 자기성취’를 위해서 서반구에서 지속적이고 혁명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는 이것이 남미국가와 미국에서 전통적 정책의 변화와 민중의 이익을 위한 기득권의 종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다. 케네디 대통령은 주요한 일차 생산물을 위한 수출 시장의 확대와 보다 큰 시장 안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는데 이 문제들은 과거에 미국에서 호의적인 반향을 받지 못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과거에 남미국가의 정부들에게 걸림돌이었던 경제적 통합 문제를 남미 내에서 다시 제기하였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시대의 진보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공유할 권리를 완전히 인식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민주적 삶에서 다수의 필요를 무시하는 반면에 소수의 욕구에 맞추는 제도를 위한 나라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토지들의 제거는 토지개혁, 세계개혁 그리고 교육, 보건, 주거부분의 중요성의 강조와 같은 광범위하고 힘든 변화를 요구할지 모르지만 이런 변화 없이는 우리의 공동의 노력은 성공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미국 행정부는 남미의 국가가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구하려는 어떤 계획도 재정적으로 확실하게 지원하려는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갖고 있었다. 폰타 델에스테에서 회의가 진행 중이었을 때 미국 대표단의 입

장은 미국에서 상원이 대통령의 외국원조법안에서 법안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삭제했을 수정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더 강화되었다. 쿠바를 제외하고 회의에 참석한 모든 대표단이 1961년 8월 17일에 서명한 ‘미주지역을 위한 선언’은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미국정부의 의도를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는 이 선언에 대해 같은 열정을 보였던 다른 조인국들을 대표하여 어떤 일치하는 확실한 약속도 없이 해산되었다. 이 선언에서 성명서의 목적은 사회정의의 가장 열렬한 승자가 바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남미의 국가측에서 보면 사회정의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이 것과 관련하여 딜런은 ‘건전하게 고안된 진보를 위한 외부자원의 체계적 지속적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의 수단’으로서 발전계획을 미국·남미간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유럽을 위한 마샬 계획의 실행경험은 이런 종류의 강한 운영위원회의 설립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적어도 이것은 마샬 계획의 성공에 대한 하나의 주요 명분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제안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조직할 것인가가 푼타 델에스테회의의 주된 토의사항이었던 것은 당연하고 적절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의 대표단이 반대의견에 직면하게 된 요점이었다는 것은 우려할 일이다. 남미의 더 작은 국가들은 이런 협회를 설립하고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미국과 동의하는 반면에 남미의 큰 국가는 이것을 약화시키기를 바랐다. 1961년 8월 17일 선언의 용어에서 이 두 의지의 갈등에서 더 큰 국가의 바람이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이 기록에는 ‘위원회’란 단어는 없다. 다음이 언급되어진 모든 것이다. ‘독립적이고 월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국가의 발전계획을 형성하고 검토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 남미의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만일 내가 쿠바의 대표단장인 게바라 소령이었다면 남미의 더 큰 국가의 민족주의의 승리를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진보를 위한 동맹’이 그

힘을 싹트기도 전에 그 힘이 제거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뻐하였을 것이다. 나는 힘이 없는 계획은 평화로운 동의에 의해 남미에서 사회정의를 성취하기 위한 이 새 계획인 ‘진보를 위한 동맹’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리라는 것을 예측하였을 것이다. 나는 사회정의를 미국의 민주적 혁명론적 방법에 의해 달성될 수 없다면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론적 방법이 단지 쿠바에서가 아니라 다른 남미의 국가에서도 기회를 갖게 될 것이기에 남미에서 사회정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사회정부의 요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진보를 위한 동맹’의 실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우리는 아직 이것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다. 나는 비관적인 어조 대신에 의문의 어조로 끝내고 싶다.



참고문헌

1. 국내서

-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사회학적 관심-」, 서울: 박영사, 1979.
거로영어연구소, 「영문번역요령」, 서울: 거로출판사, 1999.
이근달, 「번역의 노하우」, 서울: 시사영어사, 1998.
안정효, 「영어 길들이기(번역편)」, 서울: 현암사, 1997.
최정화, 「최정화 교수의 통역 번역 노하우」, 서울: 넷서스, 2001.
_____, 「통역과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서울: 신론사, 1997.

2. 번역서

- Koller, Werner 저 · 박용삼 역,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Bassnett - McGuire, Susan 저 · 엄재호 역, 「번역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3.